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etoday.co.kr

제232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코스피(10일) 2201.07(−10.88P) 코스닥 676.07(+3.44P)
환율(달러당 원화) 1187.10(+0.6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296%(+0.016%P)



강계웅式 '체질개선'…LG하우시스 영업망 강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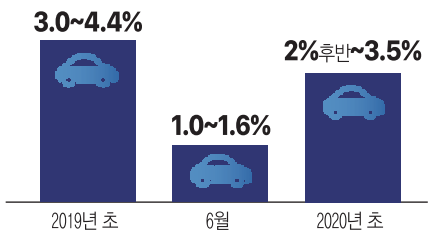
외국계 금융 대표 만난 은성수 "한국은 기회의 땅" 21

〈영업용 차량 파손 따른 영업손해 배상 보험금〉

車보험료 또 오른다…금감원 '휴차료' 인상 추진

감사원 "과소 지급" 지적에 금감원, 지급기준 개정 검토
3년前 현실화 추진했다 중단 작년 이어 추가 인상 불가피

자동차보험 인상 현황



지난해 초부터 세 차례나 인상됐던 자동차보험료가 또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비공임 인상과 표준약관 개정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집중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9년 전 개정된 휴차료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과소 지급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휴차료 일람표 현실화'를 추진한다. 휴차료 일람표는 2011년 10월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차료 일람표는 일정 기간에 맞춰 개정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작업을 한다"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휴차료란 택시 등 영업·업무용 자동차가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한 영업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뜻한다. 개인용(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차료라 한다.

인정기준액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수리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급액으로 인정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당국 감사에서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현실화를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의 휴차료 일람표가 2011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액이 과소하다는 민원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7년 초 '자동차보험의 휴차료 지급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보험개발원은 차종별 인하 요인은 반영하지 않고 인상 요인도 일부만 반영해 '휴차료 일람표 조정안'을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차종별 인하 요인까지 반영한 조정안을 다시 제출토록 한 후 현재까지 현실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인하 차종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과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8면에 계속

서지연 기자 sjy@

신종 코로나 ▶3·4·6·9·12·13·18면



봉준호 감독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영화상'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봉 감독의 '기생충(PARASITE)'은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 외에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거머쥐며 오스카 4관왕에 올랐다. LA/로이터연합뉴스

'기생충' 작품상 등 4관왕… 오스카 새 역사 썼다

감독상·국제장편영화상·각본상 수상…韓 영화 101년 만의 쾌거
봉준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아내·배우들에 감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한국영화 101년 역사상 처음으로 오스카 본상 부문에 진출해 작품상·감독상·국제장편영화상·각본상까지 4관왕에 올랐다. 비영어권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아카데미 시상식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봉 감독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1917', '포드 V 페라리', '조조 래빗', '작은 아씨들', '아이리시맨', '조커', '결혼 이야기', '원스 어폰어 타임 인 할리우드' 등 미국 영화를 제치고 작품상을 받았다. ▶관련기사 2·6면

아시아계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것은 대만 출신 리안 감독 이후 두 번째다. 리안 감독은 할리우드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2006), '라이프 오브 파이'(2013)로 두 차례 수상했다.

이날 작품상이 호명되면서 봉 감독을 비롯해 배우들은 무대에 올라 기쁨을 만끽했다. 제작자인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는 작품상 호명 직후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정말 행복하다"고 감격했다. 이어 "정말 시의적절하고 상징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고 말하며 울컥했다. 곽 대표의 짧은 수상 이후 무대 위 불이 꺼지자, 톰 행크스를 비롯해 객석에 앉은 이들이 불을 켜 달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함께 무대에 오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봉 감독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그의 유머 감각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생충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한국 관객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봉 감독은 감독상 호명 당시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봉 감독은 "어릴 때 '가장 개인적이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는데, 그 말을 한 분이 바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라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몰랐다"고 했다. 마틴 스콜세지와 쿠엔틴 타란티노 등 경쟁 작품의 감독을 비롯한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아시아계 작가가 각본상을 탄 것도 아카데미 역사상 '기생충'이 최초다. 외국어 영화로는 2003년 '그녀에게'로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받은 후 17년 만이다.

봉 감독은 "시나리오를 쓴다는 건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라며 "이것은 한국 최초의 아카데미 시상식 트로피다. 언제나 영감을 주는 아내에게도 감사하다. 제 대사를 멋지게 화면으로 옮겨준 멋진 배우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성실납세' 포상추천한 동광제약 세무조사, 왜?

지방청 후보 추천받은 지 두달 만에
지난달 전격 '탈세 의혹' 특별조사

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 후보 기업이 현재 '탈세 의혹'으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서울·중부 등 7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등에서 포상추천 후보를 건네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해당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포상추천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소재한 동광제약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동광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수개월간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의혹,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이후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국세청이 최근 제54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포상 후보 743명의 명단을 사전 공개했는데 이 명단에 동광제약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동광제약의 주요 공적은 "제약 전문기업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한 성실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날 포상 주관 부서는 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그대로 믿고 공개한 반면, 조사국에서는 동광제약에 대한 탈세 혐의를 포착해 심층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동광제약이 심층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어떻게 포상 후보 명단에 올랐는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동광제약이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 후보에 오른 것은 2012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동광제약은 정부로부터 국세청장상을 수상해 당해년도부터 3년간 세무조사 및 징수 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당분간은 과거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 후보는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출 금액에 따라 포상 추천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거장' 등극 봉준호 "가장 한국적이어서 전세계 매료"

기생충, 57개 영화제서 55개 영화상… 韓영화 새 역사

"밤새 술 마실 준비됐다."(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수상 후) "텍사스전기톱으로 잘라서 트로피 5등분하고 싶다."(감독상 수상 후)

봉준호 감독이 영화의 본고장인 할리우드의 주류 감독으로 우뚝 섰다. 봉 감독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 트로피를 한꺼번에 4개나 품에 안았다. 지난달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 때 "자막의 1인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소감으로 세계 영화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봉 감독이 이번엔 '비주류의 장벽'을 딛고 일어섰다.

봉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백인 중심이었던 92년 아카데미(오스카) 역사에 확실한 '터닝포인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생충'은 후보에 오른 6개 부문 중 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작품상까지 4관왕을 기록했다. 시상식 전부터 '기생충'은 한국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장편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 등 총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기대를 모았다.

아카데미상은 영어권 영화를 중심으로 시상하는 미국 영화상이다. 그동안 '백인 전통의 상'이라는 오명을 받아왔으나 최근 3년간 다양성에 무게중심을 둔 변화가 있었다. 2017년에는 흑인 동성애자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받았다. 2018년엔 멕시코 출신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사랑의 모양'이, 2019년에는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와 백인 운전사의 우정을 다룬 '그린북'이 각각 작품상을 수상했다. '기생충'의 선전은 이러한 변화에 정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봉 감독은 최우수 작품상 호명 후 배우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최우식,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 자리에는 봉 감독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투자자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제작사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도 함께했다.

봉 감독은 이날 시상식 후 돌비극장 인터뷰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 결과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꿈에서 깰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오히려 가장 넓게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생충'은 애초 작품상·감독상에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거론됐던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1917'도 제쳤다. '1917'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세운 앰블린파트너스가 제작한 영화로, 앞서 골든글로브 작품상·감독상 2관왕,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7관왕에 올라 가장 막강한 후보였다.

올해 '기생충'의 각본상은 한국 영화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 수상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국제영화상은 '기생충'이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바 있어 기대가 높았다.

'기생충'은 계속해서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써 왔다.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 수상한 경우는 1956년 미국 영화 '마티'에 이후 64년 만에 처음이다. '기생충'은 아카데미상 수상 전까지 해외 57개 영화제에 초청돼 55개 영화상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열린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6월 제66회 시드니영화제(2019년 6월)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9월과 10월에는 각각 제38회 밴쿠버국제영화제와 제11회 울란바토르국제영화제 등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제4회 마카오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블록버스터 영화상을 받았고, 올해 1월 제35회 산타바바라국제영화제에서는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제49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흑백 버전을 상영한 후 관객상을 받았다.

특히 아카데미 전초전으로 불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받았고, 여러 지역 비평가협회상을 휩쓸었으며, 전미비평가위원회 상도 수상했다. 감독·프로듀서·배우·작가 등 미국 4대 조합 시상식에 후보로 올라 배우조합에서 최고상인 앙상블상을, 작가조합에서 각본상을 받았다.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외국어영화상과 각본상을 수상했다.

김소희 기자 ksh@



봉준호(왼쪽 세 번째) 감독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작품상, 각본상 등 4개 부문 수상을 한 후 송강호(첫 번째) 등 출연 배우, 제작진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연합뉴스

유력후보 '1917' 제치고 비영어권 영화 첫 아카데미 작품상
64년 만에 칸·아카데미 동시석권…아시아 첫 각본상 영예도
"감독상 트로피, 톱으로 잘라 경쟁작품 감독들과 나누고 싶다"



기생충 해외 영화제 주요 수상 내역 (현지시간 기준)

2019년 5월 14일	제72회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황금종려상)
6월 5일	제66회 호주 시드니 영화제(최고상)
8월 12일	제72회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엑설런스 어워드 송강호)
9월 19일	제15회 미국 판타스틱 페스트(관객상)
9월 26일	제38회 캐나다 벤쿠버 영화제(관객상)
10월 17일	제43회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영화제(관객상)
2020년 1월 4일	미국 전미 비평가협회(작품상, 각본상)
1월 5일	제77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외국어영화상)
1월 12일	제25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감독상, 외국어영화상)
1월 19일	제26회 미국 배우조합상(영화부문 캐스팅상)
1월 22일	제49회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관객상)
1월 30일	제40회 영국 런던비평가협회(작품상, 감독상)
2월 1일	제72회 미국 작가조합상(각본상)
	제24회 미국 미술감독조합상(현대극 부문 미술상)
2월 2일	제73회 영국 아카데미상(외국어영화상, 각본상)
2월 9일	제92회 미국 아카데미상(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오스카 92년 백인주의 깬 걸작"… 외신, 극찬 릴레이

"'기생충'은 아카데미 역사를 다시 만들었다."

배우 제인 폰다가 "The best picture Oscar goes to…Parasite!(최고의 작품상은 '기생충')"이라고 외치자 할리우드 돌비극장이 환호에 휩싸였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PARASITE)'이 9일(현지시간) 열린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최초로 '최우수 작품상(Best Picture)'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외신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현지 언론들은 '설마…' 하는 분위기였다. 92년에 빛나는 아카데미 역사에서 최고의 영예를 다른 문화권 작품에 내줄 리 없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시상식 전 "기생충을 선택한다면, 아카데미는 편협하고 백인주의라는 평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1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한 샘 멘데스 감독의 '1917'의 수상을 유력시했었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갔다. 반지하의 허름한 집에 사는 가족이 IT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집안에 가정교사와 운전기사, 가사도우미로 들어가 기생하며 보여주는 빈부 격차에 세계의 영화인들이 공감한 것이다.

NYT는 9일 "외국어 영화가 마침내 오스카를 정복했다"며 "'기생충'의 수상은 '#OscarsSoWhite'라는 백인주의에 대한 거센 항의에 이어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투표권 다변화가 이룬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생충'은 할리우드가 마침내 백인 영화 제작자들이 전한 백인 이야기에 대한 과잉 의존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방송은 엔터테인먼트 면에 오스카 트로피를 건네받으며 환호하는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의 얼굴을 크게 실으며 "'기생충'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적었다.

미국 전국지 USA투데이는 "'기생충'이 공식적으로 할리우드를 정복했다"고 했다. 오스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로 결심하기까지 주저했지만 결국은 작품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에게는 최고의 경력이자 영화계 구석구석을 자극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영국 BBC방송도 "기생충이 최고의 작품상을 수상하며 역사를 썼다"며 비영어권 작품이 아카데미상 시상식 최고의 영예를 안은 점을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작품상 수상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연합뉴스

'든든한 후원자' 이미경 CJ 부회장 "한국 관객에 정말 감사"

CP 자격으로 함께 무대 올라
영화 '마더'부터… 10년 인연
첫 글로벌 프로젝트 제작 지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오스카) 4관왕을 기록한 가운데 전폭적인 후원자로 알려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시상식에서 함께 기쁨을 나눴다.

이 부회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거머쥐자 봉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할 때도 봉 감독과 함께했다.

'기생충'의 책임프로듀서(CP) 자격으로 무대에 오른 이 부회장은 "봉 감독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 그의 머리, 그가 말하고 걷는 방식, 특히 그가 연출하는 방식과 유머 감각을 좋아한다"며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놀리지만, 절대 심각해지지는 않는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기생충' 제작진과 동생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국 관객에 인사를 전하며 "기생충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많은 분이 저희의 꿈을 만들기 위해 지원해 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부회장은 "정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영화를 보러 가주시는 관객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이라며 "주저하지 않고 저희에게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견 덕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많은 감독과 창작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과 봉 감독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부회장은 영화 '마더' 때부터 봉 감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봉 감독이 첫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제작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년간 건강상 이유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부회장이 '기생충'을 위해 시상식에 연거푸 함께하자, 외신들도 주목했다.

김소희 기자 ksh@

아마존 "불참" 삼성도 "재검토"… MWC '흥행 적신호'

글로벌 ICT 행사 불참 잇따라
"안전 우선" LG·에릭슨 취소 이어
아마존 등 굵직한 기업도 불참 의사
삼성마저 전시 규모 대폭 축소 검토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반쪽' 우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김빠진 사이다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아마존닷컴이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로 인해 'MWC 2020'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MWC 2020은 24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데, 아마존에 앞서 이미 LG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공급업체 에릭슨, 미국 그래픽칩 제조업체 엔비디아,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 등 세계적인 IT·통신업체들이 불참을 표명했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우려로 MWC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아마존은 올해 MWC에서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중심으로 개막 첫날 하루 종일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로 무산됐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도 MWC 참가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넷과 테크크런치 등 주요 IT 전문매체들은 삼성도 참가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삼성마저 빠지게 되면 '세계 최대 모바일 축제'라는 MWC의 명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씨넷은 만일 삼성이 참가하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의 한국과 미국 법인에서 이미 많은 직원이 유럽 출장을 취소한 상태다. 씨넷은 삼성이 아직 MWC에서 부스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신종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며, MWC를 통한 고객사와의 중요한 계약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입장에서 MWC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다. 과거 삼성은 신제품을 발표하는 주요 창구로 MWC를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미국에서의 언팩 행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올해도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S20'과 '갤럭시Z 플립' 등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에릭슨의 뵈르예 에크홀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7일 MWC 불참을 결정하면서 "가볍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MWC에서 혁신 기술을 선보이기를 고대했지만 직원과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ZTE는 신종 코로나로 커진 '중국인 혐오증'을 염두에 둔 듯 "우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불참의 변을 밝혔다.



LG전자와 아마존닷컴, 에릭슨, 중국 ZTE 등 글로벌 IT·통신 대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올해 MWC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방문객들이 ZTE 부스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바르셀로나/AP뉴시스

MWC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한 화웨이와 샤오미, 비보, 오포 등 다른 중국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MWC 주최 측이 내건 조건 때문이다. 씨넷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여행자는 행사장에 출입할 수 없다. 또 중국에 체류했던 모든 참가자는 여권 스탬프와 건강진단서 등으로 행사 14일 전에 중국 이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문을 받아 철저한 방역에 나설 것"이라며 "행사장에서는 체온검사를 실시하고 참석자들은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매년 MWC 행사에는 중국인 5000~6000명이 참석했다. 이는 전체 방문자의 5~6% 수준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
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팽팽

#근로자 A씨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한 후 기침, 발열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현재 국내외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하철에 감염자가 있어서 출근 도중 감염자를 통해 감염된 것이 산업재해(산재)라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문의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산재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은 A씨는 지인인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측 "개인 질병" 산재신청 포함 안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 법조계 판례 제시

만약 이 같은 사례처럼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할지를 놓고 정부와 법조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산재가 아닌 단순 질병으로 보는 반면에 법조계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재 보상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한 '신종 코로나 산재보상 업무처리 지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노출될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간호사인 B씨가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함께 동승한 이후 발열, 근육통이 발병했고, 진단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출퇴근 중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는 업무 도중 얻은 질병이 아니므로 산재 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그러나 법조계는 다른 입장이다. 공동법률사무소인 일과사람은 출퇴근 중 신종 코로나 감염자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 역시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과사람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통상(경로와 방법으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과사람 최종연 대표 변호사는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신종 코로나 감염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을 놓고 정부와 법조계 간 의견이 분분하면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광둥성서 온 27번에게 입국장도 선별진료소도 뚫렸다

신종 코로나 방역 '구멍'

중국에서 지난달 24일부터 기침 증상 있었지만 본인이 신고 안해
마카오 경유해 입국장 무사 통과…폐렴 없어 의사환자 분류 안 돼
31일부터 10일간 택시·음식점 이용…남편 26번 감염원 불분명

중국 광둥성으로부터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27번 환자(37·여·중국)가 중국에 체류할 때부터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 입국 후 격리까지 열흘간 방역망에 걸러지지 않았다. 마카오를 통해 경유 입국하고, 증상과 여행력이 기존 사례정의 기존에 부합하지 않아서였다. 이런 방역 구멍은 가족 내 전파를 통한 추가 감염으로 이어졌다.

1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번 환자는 중국 광둥성 방문 후 지난달 31일 마카오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달 24일부터 기침 증상이 발생했으나 입국장을 무사 통과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마카오와 홍콩은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27번 환자는 입국장 검역을 받았다"며 "본인도 신고하지 않았고, 발열도 없어서 검역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27번 환자는 5일 선별진료소(시흥시 신천연합병원) 진료에서도 의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번엔 사례정의가 문제였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고,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흉부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폐렴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사례정의에선 중국을 다녀와 폐렴 증상이 있을 때 의사환자로 분류했었다"고 말했다.

결국 27번 환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열흘간 격리되지 않은 상태로 택시, 음식점 등을 이용했다. 27번 환자가 격리된 건 함께 살던 시어머니(25번, 73·여)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였다. 이후 본인은 물론, 함께 중국에 다녀온 남편(26번, 51·남)도 확진으로 확인됐다. 26번 환자는 감염원이 불분명하지만, 25번 환자는 27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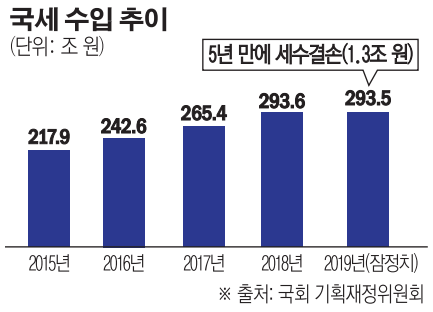
그나마 27번 환자가 증상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방치된 기간에 비해 동선은 짧다. 이달 1~2일과 4일, 6~8일 종일 자택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문지는 귀국 후 자택으로 이동할 때 이동한 택시, 시흥시 소재 음식점(3일 오후 7시 30분, 태양 38년 전통 그옛날 손짜장),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정도다. 25번 환자는 5일 오후 3시 40~52분 시흥시 매화할인마트, 7일 오전 10시 44분~11시 13분 엘마트 시흥점,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했다. 26번 환자는 증상이 발생한 후 동선이 25번 환자와 같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25번, 27번 환자의 접촉자는 각각 11명, 32명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까지 신고된 의사환자는 확진환자를 포함해 총 2776명(누적)이다. 확진환자는 27명으로 전날과 같았으며, 1940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됐다. 809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총 1762명이 확인됐으며, 927명이 격리 중이다. 6번 환자(55·남)의 아들이자 3차 감염자인 11번 환자(25·남)는 증상이 호전되고 2회 연속으로 실시된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확진환자 중 네 번째로 퇴원이 결정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국세 수입 추이
(단위: 조 원)



※ 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4년 만에 '세수 펑크' 났는데 정부 "오차율 최저치" 자찬

작년 국세 1조3000억 덜 걷혀 소주성·유류세 인하 등 영향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 원 덜 걷히면서 세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차율을 17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이며 이월 2조6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293조4543억 원으로 세입예산(294조8000억 원) 대비로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은 감소했지만 오차율은 -0.5%로 2002년 0.3% 이후 17년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3년 동안 세수가 더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세수가 감소하자 돌연 오차율이 줄었다고 홍보한 것이다. 2016년 오차율은 8.8%, 2017~2018년은 9.5%에 달한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80%→85%) 인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42.6%나 더 들어왔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에 따라 1조2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가 28.3% 줄고 수입 감소에 따라 관세가 10.6%나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3조8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1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는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10조5000억 원이 이·불용됐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머리 맞댄 항공사 CEO 우기홍(맨 오른쪽 두 번째) 대한항공 사장과 한창수(세 번째)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10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연합뉴스

세계식량가격지수 4개월 연속 오름세

유지류·설탕·곡물↑ 육류↓ 1월 지수 전월 比 0.7% 상승

세계식량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지류·설탕·유제품·곡물 가격은 오른 반면 육류 가격은 하락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81.2포인트) 대비 0.7% 상승한 182.5포인트였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최근 4개월 동안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전년과 비교해 11.3% 상승했다.

지난해 평균 식량가격지수는 171.4포인트로, 2018년(168.4포인트)보다 3.0% 올랐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던 시기는 2011년으로 230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지류는 전월 대비 7.0%가 오른 176.3포인트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지류는 팜유 가격이 크게 올랐고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 가격도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지난달 중순 이후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협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탕은 인도, 브라질, 멕시코의 설탕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4개월 연속 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원유가격 하락과 계속된 미 달러 대비 브라질 헤알화 약세가 상승폭을 제한시켰다는 분석이다. 유제품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10.2% 상승했다. 곡물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2.9%가 올랐다. 곡물가격은 2018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모든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1%도 안 되는 중견기업, 全산업 매출 15% 차지

고용 13.8%·수출 16.3% 견인 "중견기업 맞춤정책 1분기 마련"

기업체 수로는 전체 1%가 채 안 되는 중견기업이 지난해 전산업 매출의 15% 가량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역시 13.8%, 수출은 16.3%를 차지해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발표한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2018년 말 기준)'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 수는 2018년 기준 4635개로 전체 영리법인 중 0.7%를 차지했다.

1000개 기업 중 7개에 불과한 비중이지만 매출과 고용, 수출에서 나타나는 경제 기여도는 적지 않았다.

매출의 경우 2018년 767조 원에 달해 전체의 15.7%를 담당했다. 중견기업의 매출은 2015년 620조 원에서 2016년 639조 원, 2017년 738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출은 98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3%에 달했다.

고용 역시 141만 명으로 조사돼 13.8%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채용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연간 중견기업 채용인원은 18만392명으로 이 중 청년(만 15~34세) 채용인원이 11만2000명으로 62.5%에 달했다.

직무별로는 생산직(44.8%) 채용 비중이 가장 크고 사무관리직(24.7%), 영업직(11.2%), 연구개발직(5.4%) 순이었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135만 원 늘어난 3282만 원이었다. 연봉 수준은 비제조업(3188만2000원)보다 제조업(3427만6000원), 내수기업(3173만8000원)보다 수출기업(3471만6000원)이 더 높았다.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도 눈에 띈다. 2018년 중견기업의 총투자액은 3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8% 늘었다. 분야별로 연구개발(R&D) 투자는 11.1% 늘어난 8조 원, 설비투자는 11.0% 증가한 2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째 감소… 車 산업 부진 탓

1월 구직급여 지급액 7336억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9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의 주요 업종인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과 생산 부진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의 주원인이 됐다.

지난달 자동차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7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7900명 감소했다. 완성차와 부품 부문 모두 가입자가 줄었다. 전자·통신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4600명 감소했다. 기계장비 업종도 관련 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고용보험 가입자가 6800명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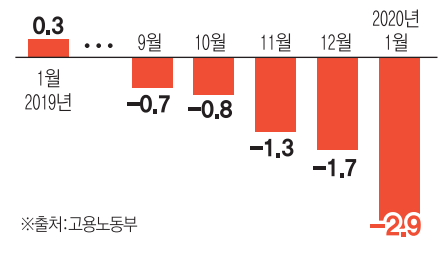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경우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4800명 늘었다.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29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9만3000명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7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설 연휴가 낀 데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 효과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기저 효과도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7336억 원을 기록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
(단위 : 만 명, 전년 동월 대비)



※출처: 고용노동부

韓, 北 개별관광·철도사업 협조 당부… 美 "충분히 이해"

한미 워킹그룹 회의
韓 "개별관광 유엔 제재 예외 북미대화 재개 긍정적" 강조
北 반발에 비공개 회의 진행

10일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 측은 북한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참석해 비공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연초부터 제기한 북한 개별관광을 비롯해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데다 오히려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DMZ 평화지대화의 경우도 비영리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유엔 제재의 예외라는 점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라며 미국을 설득해왔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남북협력 사업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킹그룹 회의를 두고 여권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워킹그룹을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불허하는 일종의 '게이트 키퍼'라는 인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달 특파원 간담회에서 "워킹그룹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한 듯 외교부는 회의 개최 당일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물론 개최 여부조차 함구했다. 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관련 일정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국장급 협의로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가 워킹그룹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북한 반발과 국내 일각의 비판으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북한은 앞서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 간 종속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 회의에 반발하는 북한을 고려해 '한·미 워킹그룹'이란 '간판'을 떼고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회의 이후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 워킹그룹이란 표현을 아예 쓰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교류 협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교류협력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이 10일 완료됐다. 정부가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 등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기존 교류협력국이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돼 통일부는 기존 '2실(통일정책실·기획조정실)'에서 '3실' 체제로 전환됐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민주당, 두 번 보류 끝에 정봉주 '부적격'

미투 논란… 총선 악재 사전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출마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4·15 총선에서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정 전 의원에 대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확정·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과 9일 두 차례나 결론을 유보하며 정 전 의원이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했고, 전날에는 이해찬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정 전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결국 지도부가 직접 칼을 빼 든 셈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4·15 총선 공천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미투(Me Too)' 논란에 휩싸인 뒤 언론사와 무고·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재판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미투 논란' 자체가 총선 전체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 전 의원의 출마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부적격 판정'을 최종 확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간 민주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등 논란의 당사자를 정리할 때 물밑에서 설득한 뒤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에게도 같은 방식을 시도했지만 정 전 의원은 '억울하다'며 출마 의사를 접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11일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기생충 축하" 짜파구리 먹는 美대사

해리 해리스(맨 왼쪽)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음식 중 하나인 '짜파구리'를 먹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주미대사관

유승민 결단에 황교안 "합당 환영"

보수통합 시동… 진보 '긴장'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당창설에 화답하면서 보수통합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여기에 정병국 새보수당 의원이 중도보수 통합협의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참여를 선언하며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진보 진영이 긴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합당과 총선 불출마에 대한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한국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화답했다. 황 대표는 보수 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신당준비위(통준위)를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 정당 간 협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더할 것을 기대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전날(9일) 불출마를 선언, 한국당에 합당을 제안하며 보수 3원칙을 우선시한 개혁보수를 강조했다.

유 위원장의 결단과 황 대표의 화답은 친박과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새보수와의 통합 의지를 보이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에 기대를 심어줬다. 새보수 현역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 공천을 정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위원장이 대구 불출마를 선언한 데다 김 위원장이 '완전국민경선'을 도입하고 있어 경선에 부담을 느끼는 새보수 현역 의원들에게는 기회라는 해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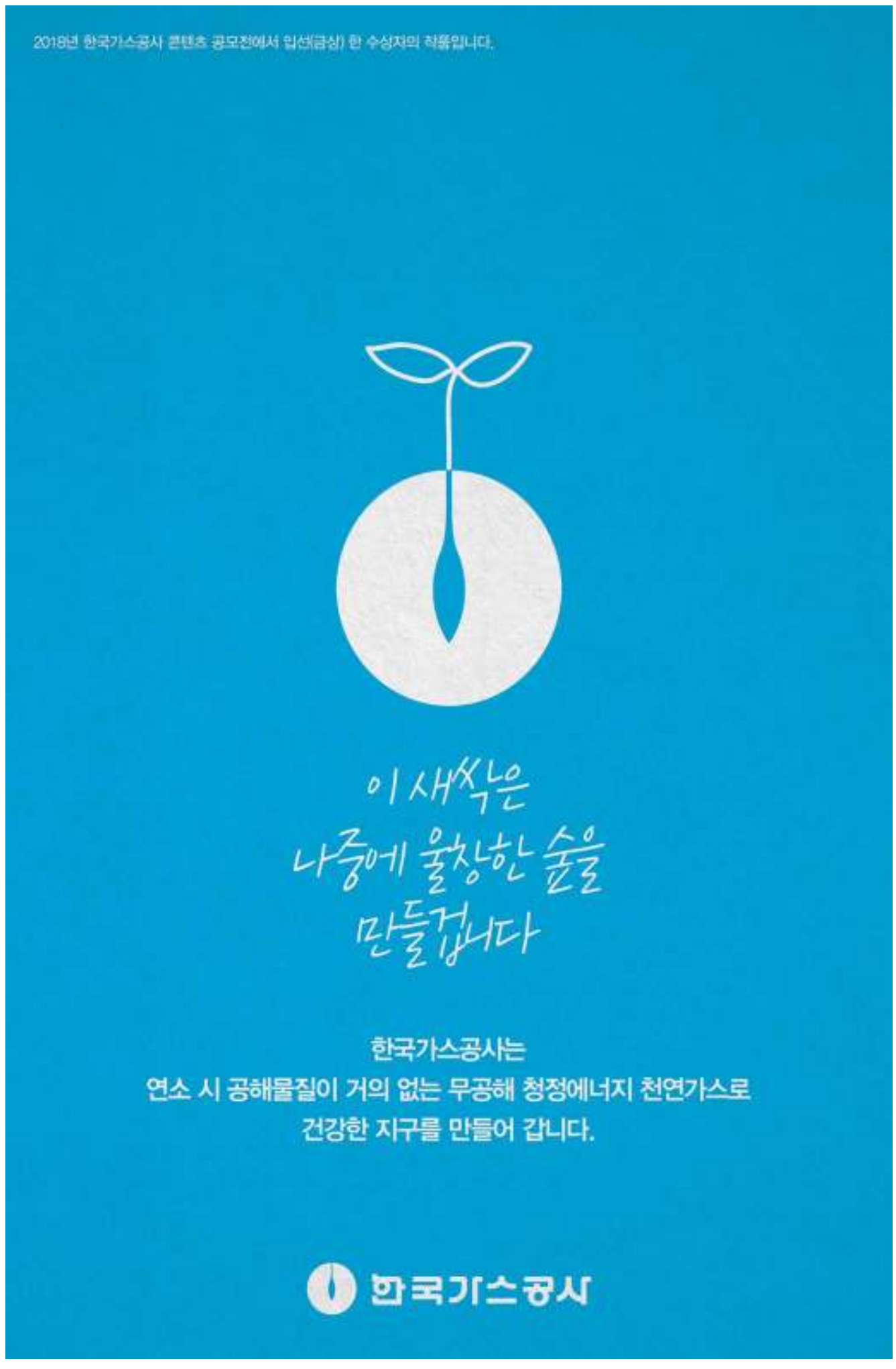
또 정 의원이 혁통위에 참여하는 것은 규모를 넘어 보수통합 가치를 모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종로 출마를 선언했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보수 통합 논의에 손을 보탰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자 그는 "저의 출마 선언을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4·15 총선 승리를 위해선 보수대통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정치는 생물이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다"면서 "(최근 보수진영 움직임을) 가볍게 보면 진보 진영은 큰코 다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보수대통합과 분열된 진보의 대결은 끔찍한 결과일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통한 진보정권 재창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만하지 말고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향해 합치자고 제안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유럽까지 연쇄감염… 싱가포르에 '슈퍼 전파자' 있었나

콘퍼런스 참가자 속속 2차 감염
英·佛·스페인서도 확진자 나와
中 우한과 함께 새 진원지로 의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난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함께 싱가포르가 새로운 진원지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주말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서 새롭게 나타난 신종 코로나 환자들은 모두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영국인 남성으로부터 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확진 환자가 확인된 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 이어 유럽 3개국에서도 지난달 싱가포르 콘퍼런스와 관련된 환자들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패턴은 한 명의 감염자가 여러 사람에게 질병을 전염시키면서 전 세계로 병이 확산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사태 당시와 비슷한 것이어서 '슈퍼 전파자'가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보건부는 전날 자국 스키 리조트에 머물렀던 영국인 5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감염된 5명은 성인 4명에 9세 아동 1명이다. 이들은 프랑스 동부 오트사부아 지역의 '레콩타민몽주아 스키 리조트'에 있는 오두막 형태의 샬레에 같이 숙박했다가 영국 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남성인 세 번째 확진자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사례로, 바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문제의 콘퍼런스 참석자다. 그는 1월 16~23일 싱가포르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후 바로 같은 달 24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스키 리조트에 머물렀다가 그달 28일 영국으로 귀국했으며 이달 초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세 번째 영국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람들이 이날 새롭게 확인됐다. 프랑스와 스페인 보건당국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5명과 같은 리조트에 머물렀던 2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영국 국적과 스페인령 마요르카 출신이다. 결국 영국인 '3번 환자'로부터 지금까지 7명이 감염된 것이다.

한국에서 17번째와 19번째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온 환자들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동일한 행사에 참석한 이후 감염됐다. 유럽과 아시아에 지사들 둔 세계적 가스분석기기 업체 영국 '세르보멕스(Servomex)'가 해당 콘퍼런스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당시 행사에 싱가포르 지사 직원 15명을 포함해 각국에서 총 109명이 참석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추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4일 말레이시아의 첫 자국민 환자로 판정받은 41세 남성도 싱가포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말레이시아 일간지 뉴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국인 확진자들과 콘퍼런스 기간에 뷔페 식사를 같이 했다.

이 말레이시아 환자를 통한 2차 감염자도 잇따라 나왔다. 귀국하고 나서 설을 맞아 가족·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여동생(40)과 장모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싱가포르 보건당국도 지난달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국민 15명 중 4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보건경보 등급을 기존의 '옐로(노랑)'에서 '오렌지'로 격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나도 민주당 경선 후보라고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9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내슈아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투표 독려 행사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10일 열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함께 '대선 풍향계'로 통한다. 피트 부티지지가 1위를 차지한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클로버샤는 5위에 그쳤다. 내슈아/AFP연합뉴스

'오스카상' 탐났던 '손바닥 극장' 넷플릭스, 홍보비 833억 풀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아카데미상(오스카) 수상에 목이 말랐다.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의 '아이리시맨'과 '결혼이야기'가 최고 영예인 작품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결혼이야기'의 로라 던이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아메리칸 팩토리'가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고대했던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오스카상 후보 지명은 영화산업 패러다임의 극명한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선진국의 전유물이던 극장 영화 시대가 가고 모바일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넷플릭스는 상업성과 함께 작품성까지 인정받으려 욕심을 내고 있다. 2017년 영화 경영 분야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스콧 스투버를 영입해 영화 책임자로 임명하고,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는 영화 스튜디오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또 스코세이지 등 할리우드 거장들과 손잡고 작품성을 인정받는 영화들을 선보였다.

작품성은 곧 수상 야심과 연결된다. 넷플릭스가 올해 오스카상을 거머쥐려고 투자한 홍보비만 7000만 달러(약 832억 900만 원)에 달한다.

넷플릭스가 수상에 목을 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손바닥' 극장의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자크 쉐이크 미국 미디어리서치 회사 마지드 부대표는 "와비파커나 아마존의 운영과 비슷한 홍보 전략"이라면서 "브랜드 홍보와 함께 넷플릭스가 영화 제작사들의 예술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영화 관계자들에게 넷플릭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영화 제작사들과 배우들의 넷플릭스 영화 제작 참여를 독려해 넷플릭스만을 위한 양질의 독점 콘텐츠 생산도 가능해진다. 이로써 경쟁사인 디즈니 혹은 워너미디어보다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게 된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수상은 이 분야에서 우리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中 무역전쟁 2년… 세계 상거래도 격변

日·EU·베트남 등 교역량 증가 수혜… 對중국 수출급감 한국은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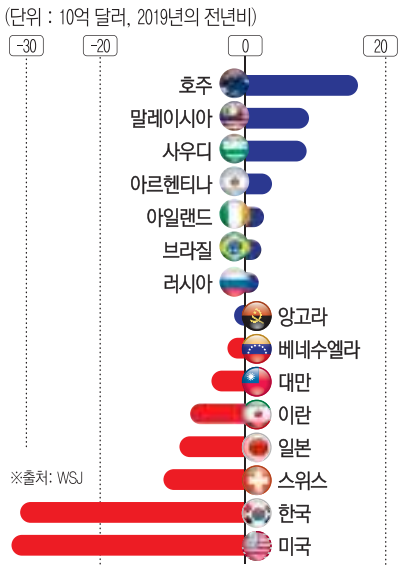
글로벌 무역 성장에 급제동을 걸었던 2년간의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상거래 시장에도 격변을 가져왔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1%로, 전년도 증가율(4%)을 한참 밑돌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기준으로, 이는 지난 40년간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리세션(경기침체) 때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수치다.

애널리스트들은 무역 성장이 둔화한 가장 큰 이유를 미·중 무역분쟁에서 찾았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구매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로, 각각 연간 2조 달러 이상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분쟁 발발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농산물, 항공기, 기계류 수출이 감소했다. 중국의 경우 미국으로의 전자기기, 공산품 수출이 줄었다.

WSJ는 "지난해 중국의 수입은 590억 달러, 미국의 수입은 420억 달러 각각 감소했다"며 "여타 국가들이 무역을 대신하지 않았다면 미·중의 수입 감소 폭은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5개국 중 11개국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입이 감소한 국가는 단 4개국뿐이다. 중국은 7개국에서 수입이 증가했지만, 8개국에서는 감소했다.

중국의 무역상대국별 수입량 변화
(단위 : 10억 달러, 2019년의 전년비)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의 교역이 급증했다. 수년 전부터 베트남의 대미 의류 무역은 계속 증가세를 이어오긴 했으나,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의 베트남산 수입이 급증했다. 휴대전화 수입액이 60억 달러, 가구·통신기기·컴퓨터칩 수입이 모두 20억 달러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의 대미 수출도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50억 달러 이상, 아일랜드가 40억 달러, 벨기에가 30억 달러, 이탈리아가 20억 달러가량 늘어났다. 프랑스에서는 항공기 제품이,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의약품, 네덜란드는 석유와 산업기계 분야에서 대미 수출이 각각 증가했다.

일본도 사실은 무역분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일본의 수출 총액은 전년 대비 5.6%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휴전에 돌입한 올해 상황은 어떨까. IMF는 2020년 세계 무역이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변수로 부상했다. 전 세계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바이러스는 적어도 일부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분석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中 1월 소비자물가 5.4% 폭등

춘제·돼지열병·코로나 여파
8년3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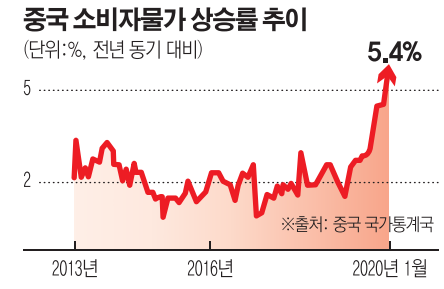
중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식료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결과다.

10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 중국 CPI가 전년 동월 대비 5.4%나 폭등했다고 발표했다.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 4.9%를 훨씬 웃돌았고, 8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물가 상승 목표치인 3% 달성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ASF로 상향 곡선을 그리던 돼지고기 가격이 춘제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 뛰었다. 1월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16%나 올랐다. 작년 12월의 97%보다 높았다.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1월 식료품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0.6% 오르면서 CPI를 끌어올렸다.

국가통계국은 성명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춘제 연휴와 신종 코로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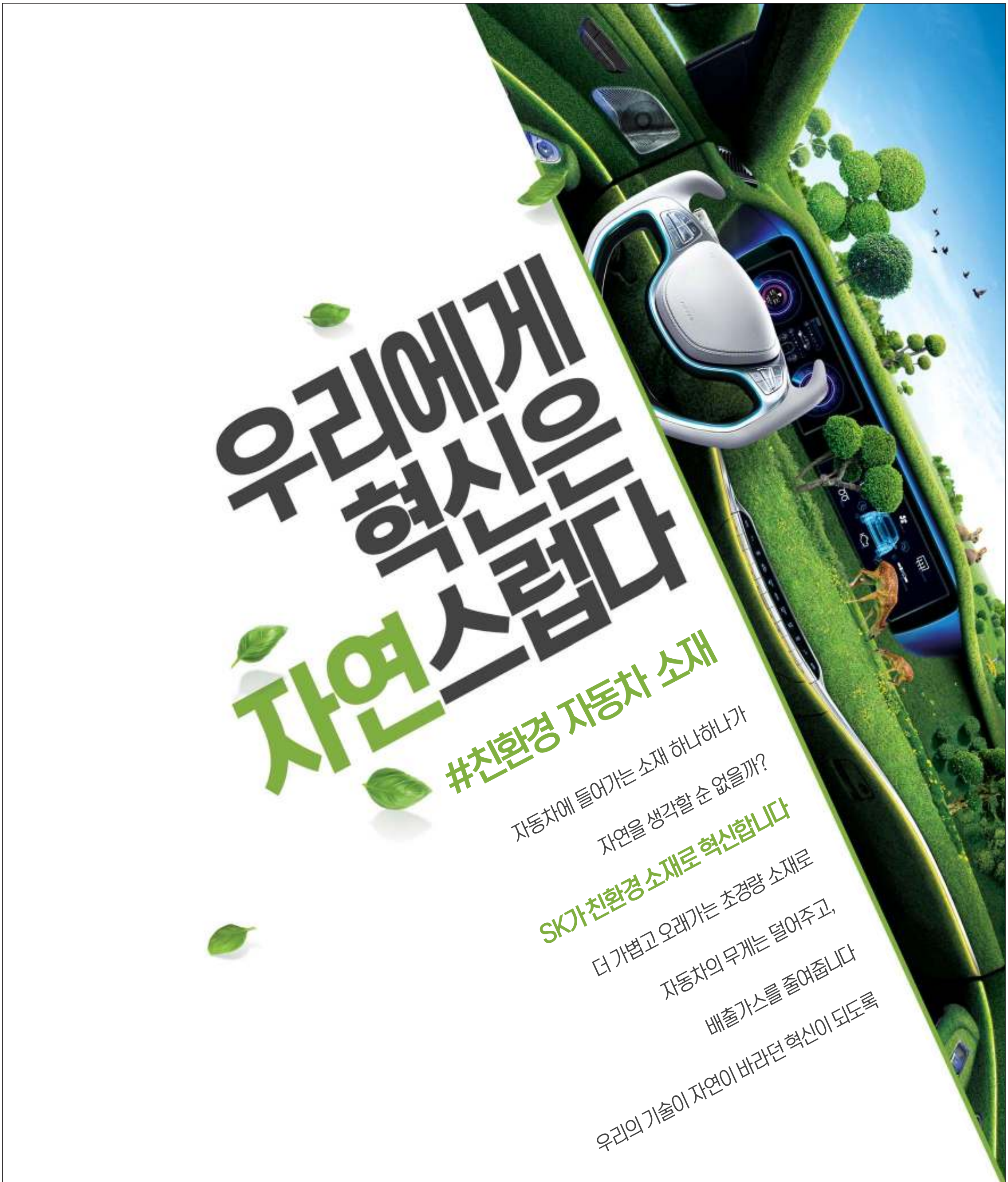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여파"라고 설명했다.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식료품 물가는 신종 코로나 발병에 따른 공급 차질로 고공행진했다.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보통 춘제가 지나면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코로나 발병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언제 완화할지도 미지수다. 한나 앤더슨 JP모건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 여파로 멈춰 선 영업 재개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
#친환경 자동차 소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자연을 생각할 순 없을까?
SK가 친환경 소재로 혁신합니다
더 가볍고 오래가는 초경량 소재로
자동차의 무게는 덜어주고,
배출가스를 줄여줍니다
우리의 기술이 자연이 바라던 혁신이 되도록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 회장이 총책임자 금감원 vs 우리은행 유례없는 '진실공방' 보복·뒷북 제재 의혹

DLF사태發 '치킨게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린 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금융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금감원은 우리은행 영업점 일부 직원들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맞섰다.



◇금감원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제재" vs 우리은행 "현행법 CEO 제재 근거 부족" = 우리은행과 금감원이 가장 먼저 충돌한 지점은 손 회장 문책경고에 대한 근거에 있다. 이때 '우리은행이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했는가'가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두 기관이 다투는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우리은행은 해당 사안으로 지배구조법상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하기 위해선 현재 계류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개정안은 '미준수'에 대한 CEO 처벌이 아니라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의 대응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완벽한 왜곡"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내부통제기준 논란

금감원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법 안 지켜 처벌하려는 것 아니야"

우리銀 "최고경영자 징계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최근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태 이후로 더 크게 불거졌다. 해당 문제는 공식적으로 금감원 내부에서 아직 검사 과정에 있는데,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쑥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손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곤 했다. 이러한 탓에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은 △위반 건수에 대한 수치 △사전 보고 여부 △뒷북 제재 논란 등으로 두 기관의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과거 문제' 제재 시점 논란

손태승 회장 연임 논의 시기에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제재심 문제 보고 여부 등 놓고 입장차

금감원 "법규 위반 아직 검토중"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태' 손 회장 연임 여부 시기에 등장하면서 기관 충돌 = 우선 비밀번호 무단 변경 문제는 2018년 5~6월에 우리은행 영업점 일부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해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해 10~11월에 진행된 경영실태평가에서 해당 사안을 인지했다.

이때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의심 건으로 분류된 건수에서 정상 변경 건을 제외한 2만3000여 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이후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4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임직원 징계 결정 '잡음'

금감원, 우리銀 영업부문장을 제재심 '관리자 → 행위자' 변경

의도적 '징계 주체' 변경 논란

금감원 "손 회장이 명백한 상위자"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달랐다. 우리은행은 "해당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된 조치를 했고 금감원은 이후 진행한 경영실태평가에서 결과를 보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애초에 은행이 문제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입장과 배치된 해명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당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징계를 받은 사람도 없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두 가지 측면의 사실이 틀어지면서 결국 '보복 제재', '뒷북 제재' 논란이 만들어졌다. 우리은행으로선 금감원이 애초에 제재할 것이라면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다투고 있는 지금까지 미루지 않았을 것으로 보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사 과정에서 부정사실을 확인했지만, 법규 위반 검토 등의 결론은 아직"이라며 "아직 검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와 별개로 9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고객계좌 무단 변경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DLF 판매와 관련,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타났다. 금감원 제재심이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을 '관리자'에서 '행위자'로 갑자기 바꾸었다는 것이다. '관리자의 관리자'를 처벌한 전례가 없고, 이에 손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직제상 아래에 있는 정채봉 부문장을 '행위자'로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유감스럽다"라며 "정 부문장은 애초부터 '관리자' 겸 '행위자'였고, 내부통제 규정상 손 회장은 명백한 상위자이기 때문에 논쟁이 없다"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잠자는 돈' 1.4兆 주인 품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기' 6주 만에 단일 캠페인 최대 규모

지난해 말 실시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통해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주인을 찾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6주간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실시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통해 162만 명이 1조3953억 원을 찾아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난 지난 4년간 찾아간 휴면금융재산 규모(2조3000억 원)의 약 60%에 달하는 수준으로, 단일 캠페인으로는 최대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페인 대상을 휴면금융재산에서 장기미거래금융재산(법규상 정의는 없으나 통상 3년 이상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재산을 의미)까지 확대한 덕"이라며 "은행, 증권 등 각 업권에에서 실시하던 것을 전 금융권이 동시에 진행한 것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보험금이 924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3013억 원), 휴면성증권(1054억 원), 미수령주식(574억 원), 실기주 과실(55억 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46.1%로 가장 높고, 50대(31.5%), 40대(13.9%), 30대 이하(8.6%)가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휴면금융재산과 장기미거래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카드포인트까지 추가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고객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카드포인트는 약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층이 숨은 금융자산을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국민카드, 캄보디아에 해외 첫 거점 설치

KB대한 특수銀 센속지점 개소 부동산 담보대출·車 금융 등 현지직원 구성으로 맞춤 영업



KB국민카드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KB 대한 특수은행 센속(Sensok) 지점'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동철(왼쪽에서 두번째) KB국민카드 사장과 랏 소반노락(왼쪽에서 세번째) 캄보디아 중앙은행 은행감독국장, 오세영(왼쪽에서 네번째) LVMC홀딩스 회장 등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10일 해외 첫 지점인 'KB대한 특수은행 센속(Sensok) 지점'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과 오세영 LVMC 홀딩스 회장, 랏 소반노락 캄보디아 중앙은행 은행감독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말 인수한 인도네시아 중견 여신전문금융사 PT파이낸시아 멀티파이낸스자회사 편입 등으로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인 동남아 지역 비즈니스 라인 확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프놈펜 첫 지점이 자리잡은 '센속' 지역은 수도 프놈펜 북서쪽에 위치한 중산층 밀집 거주 신시가지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요가 높고 중산층이 많은 지역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신설 지점은 곧장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본점에서 기존에 수행했던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차·중고차 할부금융 영업, 카드 영업 등을 시작한다. 아울러 영업과 심사가 함께 진행되는 종합 점포 형태로 지점을 설계해 빠르고 편리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지점 인력은 현지 특성화를 위해 지점장을 포함한 직원 20여 명을 모두 캄보디아 현지 인력으로 구성했다. 동시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현지 법인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이 '일일 자점 감사'와 '특별 감사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대출은 본점에서 심사할 방침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경우 2018년 9월 공식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조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견조한 자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캄보디아 현지 영업망 확충을 계기로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융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기업銀, 순익 1.6兆… 작년보다 7.8% 줄어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6275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실적 1조7643억 원보다 7.8% 감소한 실적이다.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은행의 2019년 연간 순익(별도 기준)도 전년 대비 약 7.2%(1093억 원) 감소한 1조4017억 원에 그쳤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년 말보다 11조1000억 원(7.3%) 증가한 162조7000억 원, 시장점유율은 22.6%를 기록했다. 국내 은행권의 총 중기대출 잔액 중 가장 큰 비중이다.

이자수익자산은 전년 대비 17조8000억 원 증가한 256조 원을 기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 등 불리한 대외환경에도 꾸준한 중기대출 확대와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로 미래 성장을 위한 체력과 이익 창출 기반을 다진 한 해"라고 자평했다.

연체율은 0.02%포인트 떨어진 0.4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04%포인트 낮아진 1.28%를 기록했다. 대손비용률은 연도 말 기준 역대 최저치인 0.67%를 나타내는 등 건전성 지표 개선을 통해 이익 창출력을 높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더불어 중기금융 노하우에 바탕을 둔 혁신금융으로 수익성 개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른다

▶1면서 계속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휴차료와 대차료의 과소 지급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보험개발원의 휴차료뿐만 아니라 약관상 렌트비의 30%만 지급해주는 대차료(개인용)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민원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개발원의 휴차료 일람표에 따르면 택시는 일반 4만4420원, 모범 5만3330원이다. 화물차의 경우 최저 4만3260원에서 15톤 이하 11만3170원 선이다. 하루당 영업손해를 대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휴차료 개정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휴차료 지급기준을 현실화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누적 기준 90%를 대부분 상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손해율을 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치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 보험금 지급 요인이 잇따라 난감하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금 상향 등 당국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하니스 비행기로 공수…車공장 직행

'中 생산시설' 재가동 첫날
LG전자 현지 공장 70% 가동
SK이노, 주재원 복귀 시작
삼성, 톈진 공장 7일 후 기약
현대차, 17일까지 순차 재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멈춰 섰던 국내 기업들의 중국 현지 공장이 대부분 10일 재가동한 가운데 일부 공장은 아직 지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며 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가동을 시작한 공장은 현지에 머무르거나 국내로 복귀했던 주재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 정상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재가동 예정이던 톈진 TV 공장은 일주일 후쯤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이 연기됐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LG전자 역시 중국에 있는 10개의 공장 중 7곳은 생산을 재개했지만 3개(톈진·항저우·친황다오) 공장이 지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생산 재개를 위해서는 며칠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포스코 우한 공장도 이날 가동 재개 예정이었지만, 중단 기간이 연기됐다. 최근 전세기로 1·2차에 걸쳐 귀국한 주재원들은 전원 진천과 아산에 격리 중이다. 이달 중 중국 상하이로 우선 복귀해 상황이 안정되면 우한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날 재가동에 돌입한 공장들 역시 100% 정상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춘제 기간 외부 이동 복귀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확대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의 복귀 지연이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자칫 공장에 확진자라도 발생하면 다시 강제 휴업에 돌입해야 한다.

이날 공장을 재가동한 LG디스플레이 측은 "처음부터 이전 상태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복귀 인력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가동률을 높여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G화학 난징 배터리 공장도 일부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생산을 재개했지만 아직 격리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은 창저우 배터리 공장과 관련 지방 정부 및 현지 협력사와 협의해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으로 돌아온 주재원들도 복귀를 시작해 조만간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춘제 연휴 기간에도 정상 가동해왔던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은 이날 중국 정부 지침에 따라 일부 인력이 추가로 복귀했다. SK하이닉스 우시 반도체 공장도 이날부터 평일 근무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했으며 자가 격리 인원도 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순차 복귀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공장의 발목을 잡았던 와이어링 하니스(하니스)도 현지 생산이 시작돼 10일 오전부터 항공편을 통해 하니스 1차 생산분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통관 과정을 거쳐 곧바로 울산과 아산 등 완성차 업체로 배송된다.

중국 산둥성에 자리한 하니스 생산공장 32곳 가운데 30곳이 방역조건을 충족해 8일부터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하니스가 도착하면 현대차와 기아차 전 생산공장이 예정대로 12일부터 17일까지 재가동을 시작한다. 주문이 밀린 그랜저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V80 역시 12일 오후부터 출고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조업재개 초기부터 속도를 끌어올려 정상 수준의 조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생산물량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노조와 특별연장근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상하이에 있는 삼성전자 현지 최대 모바일 플래그십 매장도 이날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부터 다시 운영되는 상하이 플래그십 매장은 4시간마다 소독을 실시한다"며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들은 입장할 때 체온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김준형 기자 junior@
하유미 기자 jscs508@



삼성 '비스포크' 색상
신형 전자레인지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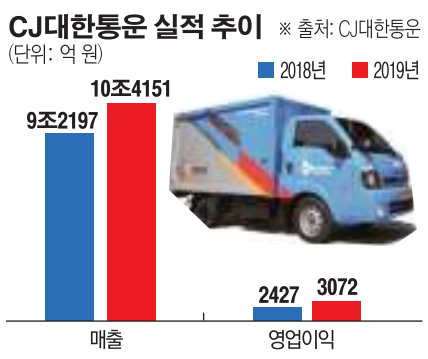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향상된 성능과 새로운 디자인을 더한 전자레인지 신제품을 10일 출시했다. 전자레인지 신제품에는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의 다채로운 색상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글라스 소재까지 적용해 품격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신제품에는 기존 방식에 그릴을 추가로 도입한 복합 열원 방식이 적용돼 음식 표면을 바삭하게 유지하면서 속까지 골고루 익혀준다. 집에서도 높은 수준의 빵과 디저트를 경험할 수 있는 '노오븐 베이킹'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또 '홈 디저트' 자동 조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복잡한 레시피 없이 버튼 하나만으로도 파운드 케이크, 에그 푸딩 등 디저트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총 17가지의 냉동·튀김류 간편식을 최적으로 조리하는 자동 조리 모드 △기존 대비 28% 더 빠르게 해동하는 '쾌속해동 플러스' 기능 등을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삼성 전자레인지 신제품은 23리터 용량에 클린 그레이, 클린 차콜, 클린 화이트, 클린 핑크, 클린 민트의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출고가는 25만 원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해외·택배 고속성장
CJ대한통운, 실적 쑥
작년 매출 13%·영업익 27%↑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수출 사업 및 택배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매출 10조4151억 원, 영업이익 3072억 원을 달성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 27% 상승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글로벌 및 택배 부문 고성장 지속에 매출액이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추가 비용 발생에도 전 사업부문의 수익성 위주 경영, 비용절감,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에는 매출 2조8257억 원, 영업이익 101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 15.9% 증가했다.

CJ대한통운은 "판가 인상, 운영고도화 및 수익 중심 사업구조 개선 등으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대부분의 사업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됐다. 지난해 4분기 CL(계약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상승한 6738억 원을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고객 공략과 수송 구조 개선에 따른 수익 기반을 확보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택배 부문에서는 같은 기간 13% 상승한 728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운영 안정화 및 원가 경쟁력 확보로 매출이 상승했다고 CJ대한통운은 설명했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7.9% 오른 1조19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CJ대한통운은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립했다"며 "해외택배 분야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사 수주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전자 쉼없이 사용가능한 8K 사이니지 공개 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간)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ISE 2020'에 참가해 2020년형 QLED 8K 사이니지 등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특히 8K 사이니지는 최초로 24시간 연중 쉼없이 사용 가능한 내구성을 갖췄다. 또 CT·MRI와 같은 의료용 디지털 영상을 정확히 표현해 병원 연구실이나 세미나실 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한화시스템 역대 최대 실적
작년 영업익 15%↑ 858억



김연철 대표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85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15% 늘어난 수준이자, 역대 최대 실적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5460억 원으로 16% 늘었다.

방산 부문은 매출액 1조705억 원, 영업이익 454억 원이었고, ICT 부문은 매출액 4490억 원, 영업이익 403억 원을 기록했다. 2018년 두 부문의 결합으로 발생한 무형자산 상각(PPA) 비용의 ICT 부문 반영분(144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합병 1년여 만에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넘긴 셈이다.

지난해 방산 부문에서의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한 것과 합병에 따른 시너지 경쟁력을 토대로 국방 시스템 통합(SI) 사업을 수주한 것 등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방산 부문은 지난해 △항공 피아식별장비(IFF) MODE5(5007억 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3차 양산(4700억 원) 등 총 2조2000억 원에 이르는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2016년 1조 원 수주 이후 4년 만에 100% 넘게 성장했다.

한화시스템은 올해도 방위산업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이 적용된 지휘통제, 감시정찰 분야의 역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지난해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올렸다"며 "올해는 미래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신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소비자 스킨십 강화하는 LG하우시스
영업통 강계웅 대표, B2C 집중
LG가전숍에 'Z:IN' 매장 입점
인테리어 영업맨 두자릿수 채용
'자사주 매입' 실적 개선 자신감



'영업통'으로 꼽히는 강계웅〈사진〉 LG하우시스 대표이사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부문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국내 인테리어(T/I) 전문 영업사원을 두 자릿수 채용키로 하고 이달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새로 채용되는 전문 영업사원들은 건축업체 및 T/I점을 대상으로 제품을 제안, 판매한다. 최근 LG하우시스는 지속해서 국내 영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전자 베스트샵에 LG지인(Z:IN) 매장을 입점시키며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인테리어 자재의 유통 방식을 선보였다. 프리미엄 인테리어 자재 브랜드 지인(Z:IN)도 LG지인으로 변경하며 'LG'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강 대표는 2012년 12월 매출이 줄던 하이프라자 대표로 보임해 하이프라자를 가전 유통업계의 선두 기업으로 안착시켰고, 2016년 7월 LG전자 한국영업본부 B2C그룹장을 맡은 뒤로는 LG전자의 국내 매출을 대폭 증가시켰다.

강 대표는 LG하우시스가 기업 간 거래(B2B) 비중이 커 건설시장의 부진에 크게 영향받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 B2C 부문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G하우시스는 강 대표식(式) 변화를 지속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B2C 인테리어 유통채널 확대에도 전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영업력도 확대해 고부가 제품의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건자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LG하우시스는 전방산업의 악화로 역시나 고전 중인 자동차 부품 사업에 대해서도 생존법을 모색한다. 자동차 부품 사업의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 의존도가 높아 최근 몇 년간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LG하우시스는 자동차 소재 부품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한 사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LG하우시스의 체력을 기르고 있는 강 대표는 자사주 매입에도 나서며 책임 경영을 통한 실적 개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강 대표는 자사 보통주 1000주를 취득하면서 총 보유 주식을 1980주로 늘렸다.

김유진 기자 eugene@

〈지난해 해외 총 생산 기준〉

현대기아차, 中 생산비중 10년 만에 25% 아래로

올 시장 재건 프로젝트 '신종 코로나' 변수

사드 보복 후 30%선 붕괴…일부 공장 가동 멈춰
전략 신차 준비했지만 소비심리 회복 어려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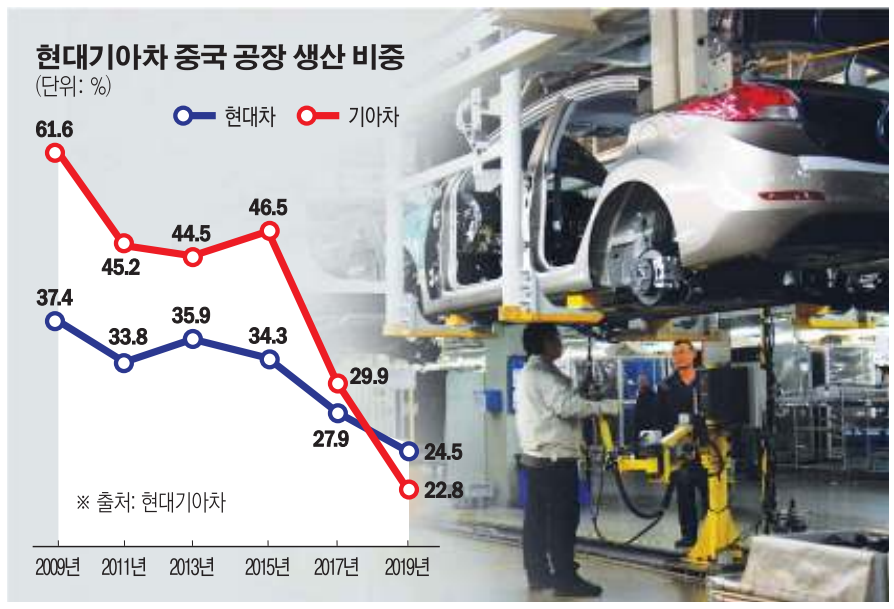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생산에서 중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현지 판매가 감소해 지난해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인도(HMI)·터키(HAOS)·중국(BHMC)·미국(HMMA)·체코(HMMC)·러시아(HMMR)·브라질(HMB)·베트남 등 8곳에서 완성차(상용차 제외)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다. 8개 공장은 지난해 총 269만 5033대를 생산했는데, 이 중 중국 공장은 66만2590대를 만들며 전체 해외공장 생산의 2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이 25%대 아래로 내려간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공장은 2002년 준공 이후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 2009년에는 연간 생산량 57만 대를 넘겼다. 현대차 해외 생산 기지 중 가장 많은 완성차를 만드는 공장으로 올라선 시기다. 당시 중국 공장은 현대차 해외 생산분의 37%를 책임졌다.

2013년에는 연간 100만 대 생산을 이뤄내는 등 줄곧 최대 생산기지 지위를 유지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한 2017년부터 기세가 꺾였다. 중국에서 반한 감정 격화로 판매가 줄자 베이징 공장 생산량도 지난해에 66만 대로 줄었다. 해외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7%에서 2019년 24%로 내려왔다.

기아차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KMMG)·중국(DYK)·슬로바키아(KMS)·멕시코(KMMG)·인도(KMI) 등 5곳에서 완성차 공장을 운영하는 기아차는 지난해 총 124만6654대를 생산했다. 이 중 중국 옌청에 있는 동풍열달기아차 공장은 전체 해외 생산의 22%를 차지하는 28만4335대를 만들었다. 중국 공장의 생산 비중이 25% 이하로 떨어진 건 역대 처음이다.



중국 공장은 2002년 기아차가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생산기지로 2006년 슬로바키아 공장이 설립되기 전까지 최대 수출기지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기아차 해외 생산의 40% 이상을 책임졌다. 하지만 생산 비중은 2017년 29%, 2019년 22%까지 내려앉으며 고전했다. 같은 시기 멕시코 공장이 연간 25만 대가량을 생산하기 시작한 점도 중국 공장의 비중 축소에 영향을 줬다.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2017년 중국 판매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이후에도 판매 부진이 지속하자 지난해 3월 현대차는 베이징 1공장 가동을 멈췄고, 기아차는 옌청 1공장 문을 닫았다.

현대·기아차는 올해를 중국 시장 재건의 원년으로 삼고 현지 재공략 채비에 나서고 있다. 수장부터 바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 중국사업 총괄 사장에 이광국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을 승진 임명하며 중장기 전략 총괄 임무도 부여했다.

올해 경쟁력 있는 신차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현지 전략 모델인 미스트라를 비롯해 신형 아반떼와 쏘나타를, 기아차는 소형 SUV 셀토스와 K5를 중국에 출시한다. 또한, 제네시스 브랜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고급차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

관건은 중국을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이 지속하면 현지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자동차 판매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금호아시아나 '2차 구조조정'?

여객지원 자회사 '케이에이' 무급 휴직 시행 검토
전체 하청업체로 확대 우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여객지원 자회사이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KA(케이에이)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아시아나항공 중국 노선 감축에 따른 일시적 조치지만, 인력감축 대상이 더욱 확대될은 물론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중 하나인 KA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시행을 검토 중이다.

KA는 2012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상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당초 지상 서비스 업무 전체를 담당했지만 이후 KR(정비)·KO(기내청소)·AQ(운송)·AH(외항사) 등의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체들로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현재 여객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KA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이미 '주 및 월 단위 무급 휴직 신청'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룹 측은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A 내부에서는 향후 전 직원 대상 희망이 아닌 의무 신청 가능성, 또 그 외 다른 항공운송지원업체 확대 적용 등 항공 관련 하청업체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원업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항공 운항 감편에 따른 일시적 휴직이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항공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건비 절감, 더 나아가는 2차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조치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마무리하며 대대적 구조조정을 일단락 지었으며, 함께 팔린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추후 재매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중 에어서울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희망자에 한해 최장 3개월의 단기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 에 게재됐습니다

DB하이텍, 작년 매출·영업익 사상 최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DB하이텍은 지난해 매출액 8074억 원, 영업이익 1813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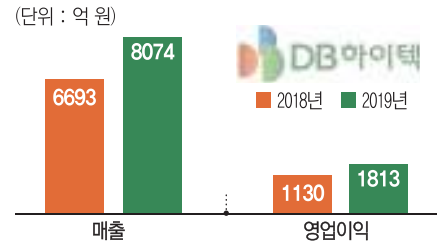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로 전년 대비 각각 21%, 60% 증가했다.

DB하이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반도체 및 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수주가 늘어나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세대 신규 제품의 양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DB하이텍은 "지난해 성장을 이끌었던 전력반도체와 센서 수요가 당분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초격차 제품의 개발 및 양산을 더욱 가속화해 대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B하이텍 실적 추이
(단위 : 억 원)



한영대 기자 yeongdai@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경쟁의 금융에서 상생의 금융으로
오늘의 방식을 넘어 내일의 방식으로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의 성장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의 기쁨을 넘어
모두의 기쁨을 키우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하나에프앤아이

중기부·공영홈쇼핑, 마스크 100만 장 '노마진' 판매

장당 1000원 수준… 손소독제 14만 개도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급난 해소 차원
박영선 "中 진출 중기 상황 안정적으로 판단"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영홈쇼핑과의 협업을 통해 마스크 100만 개와 손소독제 14만 개를 마진 없이 판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43곳에서 생산한 마스크 100만 개, 손소독제 14만 개를 확보했으며 이달 17일부터 공영홈쇼핑에서 긴급 방송을 편성해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공영쇼핑은 우선 17일에는 손소독제 2만 개와 19일에는 마스크 15만 개를 판매할 예정이다. 원가에 배송비 등 기본 경비만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한정된 물량을 고려해 1명당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한다. 손소독제는 5개씩 4000명 분이고 마스크는 40개씩 3750명 분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는 TV 방송(B tv 2번, 올레 tv 22번, LG유플러스 20번)과 PC, 모바일 등에서 진행된다. 공영홈쇼핑은 마진 없이 판매할 예정이며, 원가에 배송비만 추가할 방침이다. 10분 단위로 게릴라 생방송 판매 형태를 취한다는 게 공영쇼핑 측 설명이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별도 편성시간이 없고, 미리 주문도 안 되고, 온라인 판매도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방송만으로 주문할 수 있다"며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사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가격은 1장당 1000원 수준이다.

최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공익을 위한 방송을 준비했다"며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추가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관련 브리핑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품도 계속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미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에 공장 가동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 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마스크 30만 개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긴급 배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협조를 통해 중국 내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중국 현지 중소기업에 마스크 1만4000개를 추가로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마스크 원·부자재 수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이번 주 중 부처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조업 중단 대비책 등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2차 대응은 당장 필요치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조업 재개가 관건이었다"며 "중국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파악돼 당장 2단계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를 '중국 공장 조업 중단 기간'을 기준으로 9일 이전까지 조업 중단 시 1단계 대응을, 이보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2단계 대응을 준비해왔다. 그간 1단계 조치로 조업 재개를 위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에 집중했다.

중기부는 추가 대책으로 민관 물류사와 외교부의 경로를 통해 배송 실시 등 추가 지원 등을 모색 중이다. 중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박 장관은 "민관이 합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OTT 춘추전국… 이통사 '디즈니+' 잡아라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넷플릭스를 품고 IPTV 실적 상승을 꾀한 LG유플러스를 필두로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와 손잡고 통합 OTT '웨이브'를 출범시킨 SK텔레콤, 올 초 독자적 '시즌'을 론칭한 KT까지 유료방송 시장에 부는 OTT를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CJENM과 JTBC가 준비하는 '티빙', 넷플릭스와 포맷이 비슷한 '왓챠플레이' 등 후발 주자들의 점유율 경쟁까지 더해 OTT춘추전국시대가 열리고 있다.



'마블' 등 인기 콘텐츠 보유
3000만 유료 가입자 구축
SKT·KT, 제휴 경쟁 치열
넷플릭스와 계약 만료 앞둔
LG유플러스도 '러브콜'

10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시장이 이통 3사 '3강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최근 3000만 유료 구독자를 구축한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론칭을 두고 국내 통신사들의 물밑 접촉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마존과 애플, HBO 맥스 등이 디즈니플러스에 이어 글로벌 OTT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글로벌 OTT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이통 3사의 제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이통 3사 모두 디즈니플러스 론칭 제휴를 위해 독점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독점 제휴가 아니더라도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제휴라도 따내기 위해 협상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국내 론칭 이후 1~2년은 가입자 50만 명 돌파에 애를 먹었지만 2018년 11월 LG유플러스와 제휴 이후부터 시너지가 나면서 현재 2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상황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뒤늦게 OTT '웨이브'와 '시즌'을 각각 선보였지만, 기존 가입자 전환과 1년 장기 할인 서비스 등으로 구독률만 높이고 실제 유료 가입자는 늘지 않고 있다. 유료 가입자 유치가 부진한 이유는 오리지널 콘텐츠 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를 다수 보유한 디즈니플러스 제휴가 성사될 경우 단숨에 넷플릭스를 뛰어넘는 실적 상승을 꾀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 역시 넷플릭스와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넷플릭스 제휴 유지와 동시에 디즈니플러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가 디즈니플러스 제휴에 좀 더 가까워진 모습이다. 양측 모두 LG유플러스에 넷플릭스 특수를 놓친 뼈 아픈 경험이 있어 '마블' 등의 막강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품은 디즈니플러스 제휴에 전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업계에선 유일하게 대내외에 디즈니와의 접촉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디즈니와의 접촉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제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는 지난해 국내 OTT 시장 규모를 약 6350억 원으로 추정했고, 올해의 경우 약 8000억 원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약 1000억 원에 이르던 국내 OTT 시장 규모는 넷플릭스 국내 진출 이후부터 연간 1000억 원 가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이재훈 기자 yes@

삼성SDS-PwC컨설팅
AI 기반 업무혁신 사업협력

삼성SDS는 PwC컨설팅과 인공지능 기반 업무혁신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SDS는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 '브리티웍스'와 챗봇, 텍스트 분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한다. PwC컨설팅은 기업의 업무 혁신을 위한 통합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삼성SDS가 개발한 브리티웍스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 오류 발생률을 줄이고 비용 절감과 업무생산성을 혁신시켜주는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이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기, 수협은행, 전자랜드 등 30여 기업에서 브리티웍스를 도입해 자재 현황 분석, 고객 응대, 판매 관리 등의 업무를 자동화했다.

특히 삼성SDS 전체 임직원의 83%가 브리티웍스를 통한 업무 혁신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내 1만7800여 개 업무를 자동화해 9개월간 55만 시간을 절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게임'이 끌고 '결제'가 밀고
NHN, 사상 최대 실적

지난해 매출 1조4891억
영업익 869억… 26.6%↑
올해 웹보드 규제 완화로
게임 매출 큰 폭 증가 기대
오프라인 결제사업도 확장


NHN 사옥 전경.

NHN이 지난해 게임과 결제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로 인해 게임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페이코 이용자 확대에 따라 결제 부문 실적도 늘어날 전망이다.

NHN은 지난해 연매출 1조4891억 원을 기록해 창립 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간 영업이익은 869억 원으로 26.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84억 원을 달성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늘었으며 매출액은 4006억 원으로 4.8% 성장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은 307억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정우진 NHN 대표는 "게임 부문은 신규 게임 출시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결제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게임 부문은 '컴파스'와 '크루세이더 퀘스트', 그리고 웹보드 게임 등이 고른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라인 디즈니 쯔무쯔무' 등 기존 게임의 부진으로 인해 게임 매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는 '크리티컬 옵스:리로디드'와 '용비불패M' 등 기대작을 선보일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배틀로얄 FPS 장르의 게임과 유명 IP를 활용한 캐주얼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웹보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보드 게임의 일일 결제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이 최종 통과되면 1분기 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규제 완화가 웹보드 게임 매출에 기여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HN은 페이코 오더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결제사업도 확대한다. NHN은 페이코 거래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하고,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온라인 커머스 및 해외 가맹점의 거래가 증가해 이 같은 매출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페이코는 연간 거래 규모 6조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달 기준 이용자는 41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에는 '위치기 반 맞춤 쿠폰' 등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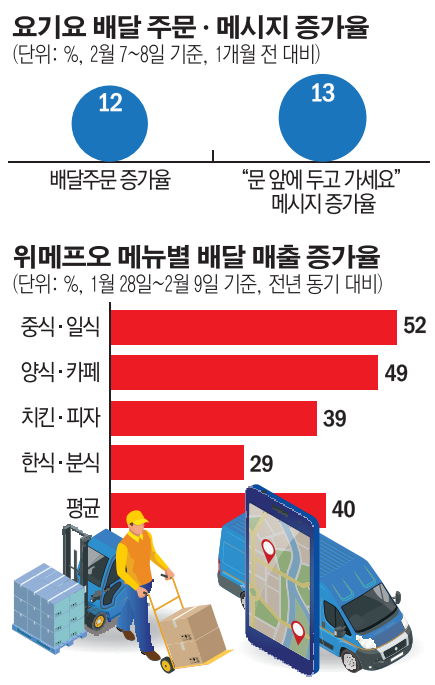
정 대표는 "페이코 오더는 지난해 1만 개 가맹점과 계약했으며 올해에는 가맹점 수를 5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페이코는 6개 금융사와 연동해 축적해 온 경험치를 활용해 금융 서비스도 점차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음식 배달도 ‘비대면’ 확산

신종 코로나 공포가 바꾼 ‘소비 트렌드’

외출 자제하는 분위기 퍼지며
지난 주말 요기요 주문 12%↑
2월 비대면 수요는 20% 늘어
위메프오 배달 건수도 ‘두 배’
홀 매장 매출 급감 ‘침체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배달사원과의 접촉마저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에 따르면 지난 주말(7~8일) 배달 수요가 한 달 전 주말 평균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배달 주문 시 직접 작성하는 메시지에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는 문구 증가율이 같은 기간 13% 늘어나며 배달사원과의 대면을 꺼리는 이들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2월 들어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는 메시지를 선택한 수요는 20% 가까이 증가했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콕족’ 덕에 온라인 장보기가 늘어난 데 이어 배달 시장에서도 철저한 비대면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디저트 메뉴 주문도 크게 늘었다. 요기요에서 주말 동안 커피, 케이크 등 디저트 판매량도 전월 주말 평균 대비 14%나 상승했다.

위메프의 배달·픽업 서비스 ‘위메프오’에서도 배달 주문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위메프오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2주간 전월 동기 대비(12월 28일~1월 9일) 배달 주문 전체 매출을 분석한 결과 주문량은 40%나 급증했다.

위메프오에서는 전통적인 배달 메뉴인 치킨, 피자보다 중식·일식, 양식·카페 메뉴의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간식이 아닌 한 끼 식사와 디저트를 집에서 해결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카테고리별로 중식·일식이 52%로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양식·카페(49%), 치킨·피자(39%), 한식·분식(27%)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장 방문 빈도는 뚝 떨어지고 있다. 배달 매장과 홀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는 “홀과 배달 주문이 4대 6 정도의 비율로 운영됐는데 최근에는 배달 매출이 거의 80%에 육박할 만큼 내방 고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신종 코로나로 인해 외식시장이 침체하는 있는 것이 매출 비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병행하는 피자와 도시락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매장에 방문해 주문 포장하는 고객보다 배달 고객 증가율이 가팔라지고 있다. 배달비가 추가되더라도 대면하는 서비스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편리미엄을 추구하는 고객이 늘어나며 외식 매장의 배달 주문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에 자체 배달 앱 ‘본오더’에서 서비스 가능 브랜드 및 매장을 대폭 확장하고 브랜드 할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통한 앱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연말 대비 주문량이 약 37%가량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업계는 최근 배달 시 벨을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배달사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고객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성형·미용시술 ‘뚝’… 겨울 특수 날린 병원가

감기 환자 내원 줄고, 방학 시즌 성형 상담도 끊겨
상급병원 쏠림 심화… 동네병원, 매출 10~50%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로 겨울 특수를 놓친 병원가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10일 개원가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감기 등 겨울질환 및 겨울 방학 시즌 성형수술·피부과 시술로 환자들이 몰리는 ‘겨울 특수’로 불린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이 시기를 개원가 특수 시즌으로 보고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가벼운 질환은 상비의약품으로 견디려는 사람이 많아져 개원가는 사실상 겨울 특수를 포기한 상태다.

의료진은 매출이 적게는 10~20%, 많게는 50%까지 급감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 개원가 의료진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일반 감기 환자 등 겨울 질환자들의 내원이 줄어들며 동네 병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매출이 기본적으로 10~20%는 줄어들었으며 많게는 50%까지 빠진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로 상급병원 쏠림이 더 강화되면서 예전 같은 시즌 특수는 사실상 옛말”이라며 “매출 극복을 위해 비급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로 병원마다 방역 장비를 구비하면서 애로사항은 더 커지고 있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성형가는 개학 전 2월까지가 겨울 성수기인데 신종 코로나 확진자 중 강남 성형외과 방문이 알려지며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 환자까지 급감했다”며 “상담마저도 뚝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20% 정도 매출이 급감된 가운데 1000만 원대 열감지기 및 정기 소독, 그리고 소독제·마스크 등의 구입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국내외 환자 급감이 매출 감소로 이어진 병원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많은 병원들은 국내외 환자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방역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가격인하 및 패키지 상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내세워 환자 유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 환자 방문이 많은 성형외과 및 피부과들은 중국인 환자들의 내원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 그 밖의 해외 환자들의 경우 별도의 동선과 시술 공간을 마련하고 진료를 진행 중이다.

개원가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타격 여파가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면서 사태 종식까지 개원가의 타격은 상당할 것 같다”며 “현재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신경 쓰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들마다 지속적인 방역 태세를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어 환자들은 큰 두려움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하나로마트 삼겹살 100g당 990원

농협유통이 목우촌 프로포크 삼겹살과 목심을 각각 990원(100g)에 선보인다. 농협유통은 목우촌 프로포크와 손잡고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하나로유통, 충북, 대전 등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19일까지 삼겹살과 목심을 각각 100g당 990원에 할인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제공 농협유통

롯데지알에스, 브랜드 통합 앱 ‘롯데잇츠’ 오픈

롯데리아·TGI 등 5곳 배달 주문



롯데지알에스는 자체 주문 서비스 통합 앱 ‘롯데잇츠(LOTTE EATZ)’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지알에스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 도넛, TGI프라이데이스, 빌라드샬롯(이하 5개 브랜드)을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 통합 앱 ‘롯데잇츠’를 개발했다. 특히 기존 롯데리아만 가능했던 배달 앱을 5개 브랜드로 확대해 자체 배달 시스템을 강화했다.

‘롯데잇츠’ 통합 앱에서 선보이는 주요 기능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메뉴를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홈서비스(딜리버리)’와 고객의 매장 방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잇츠오더’가 있다.

또한 8000원마다 주문 시 ‘CHIP(칩·스탬프)’을 제공해 모든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5가지(롯데멤버스아이디·지문·PIN번호·휴대폰번호·페이스ID) 간편 로그인 기능과 칩 사후 적립 기능 등을 제공한다.

브랜드 통합 선불카드 기능도 도입했다. 선불카드 보유 시 바코드 노출을 통해 5개 브랜드들의 온·오프라인 모두 결제할 수 있다. 롯데잇츠 메인 화면에서도 빠르게 선불카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보유 카드 현황이나 잔액 확인을 할 수 있다.

롯데지알에스는 ‘롯데잇츠’ 통합 앱 론칭을 기념해 무료 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월 10일까지 앱을 다운로드 후 로그인하면 ‘이벤트’ 페이지에서 5개 브랜드 쿠폰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마트 ‘양돈농가 돕기’ 소매 걷었다

돈육 도매가 10년 내 최저 수준
냉장 삼겹살 등 30% 할인 판매

이마트가 소비 부진과 시세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 한돈자조금과 손잡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산 냉장 삼겹살, 목심 등을 각각 기존 가격보다 30%가량 저렴한 100g당 990원에 판매한다. 준비물량은 삼겹살 200톤, 목심 50톤으로 삼겹살 기준 평상시 5주간 판매할 물량이다.

이마트가 이번 할인 행사를 마련한 것은 소비 침체로 돼지고기 시세가 하락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국내 양돈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일조하기 위해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탕박, kg당)은 2906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평균 도매가인 3505원보다도 17%가량 하락했으며 2011년 이래로 10년 내 최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원은 1월 축산관측 자료를 통해 돼지 도매가격이 평균 생산비인 3708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돼지고기 생산비는 사육 규모에 따라 1000마리 미만의 경우 kg당 4570원, 1000마리에서 2000마리 미만의 경우 kg당 4074원으로 조사됐다. 현재와 같은 낮은 도매가가 유지될 경우 양돈농가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이렇듯 돼지고기 도매가가 하락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소비 침체가 지목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19년 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식 유류 요리 전문점’의 외식산업경기지수는 65.97에 머물렀고, 2020년 1분기 전망지수도 70.17에 그쳤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2020 농업전망’을 통해 올해 1인당 돼지고기 소비가능량이 전년(28.0kg)보다 5% 감소한 26.6kg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유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심리가 한층 위축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 외식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세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마트 역시 6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1~2월 국산 돈육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승민 이마트 축산 바이어는 “도매가 하락과 소비 침체라는 내우외환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 급히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양돈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영업 중단’ 일파만파… 상장사 ‘코로나 포비아’ 확산

中 생산부품 수급 차질 영향
쌍용·현대차 이어 기아차 휴업
하청 기업들도 줄줄이 문닫아
LG·롯데 등 中 공장 중단 공개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일부 상장사들이 공장 운영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향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 9곳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생산을 중단했다. 이날 기아자동차와 국도화학은 각각 중국 생산부품 수급 차질과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의 이유로 공장을 멈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생산 중단한 상장사

구분	기업명	수익중단 분야 매출액
코스피	기아자동차	31조9121억 원
코스닥	성우하이텍	1조1993억 원
코스피	금호타이어	1조4613억 원
코스피	현대모비스	5조4131억 원
코스피	현대자동차	43조1601억 원
코스피	쌍용자동차	3조7074억 원

※출처: 금융감독원

최근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지 생산 공장 문을 닫으면서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연쇄 휴업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에 납품하던 금호타이어와 성우하이텍 등 하청 기업들도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생산 중단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규모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31조9121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54조1698억 원)의 58.91%에 달한다. 현대차(43조1601억 원, 45.48%), 현대모비스(5조4131억 원, 15.4%), 쌍용자동차(3조7047억 원, 87.62%), 금호타이어(1조4613억 원, 57.11%), 성우하이텍(1조1993억 원, 100%) 등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도 다수의 기업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예비투자설명서를 통해 “정유산업은 국제유가에 따라 수익성이 민감하게 변동하는데 하락시 원유 구매와 투입 시점 간의 시차로 재고의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로 여행업이 위축되면서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에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KB금융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데 글로벌 채권금리 변동성은 미중 무역갈등, 신종 코로나 유행 정도, 유가 회복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또 가계 소비와 기업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경기부진 위험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LG화학, 지누스, 한화건설, 롯데제과, 현대건설, 엔에프씨, SK하이닉스 등도 자사의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구체적인 영향을 공시하는 등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나섰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유가 하락 베팅 ETN 수익률 ‘고공행진’

美·이란 갈등에 한 달 새 50% ↑
원유 레버리지 ETN은 37% ‘뚝’

유가 하락에 투자하는 원유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 초 미국과 이란에 전운이 감돌면서 들썩였던 유가가 갈등 완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라는 새 국면을 맞으면서 급락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원유 인버스 상장지수증권(ETN)의 평균 수익률은 39.17%다. 원유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23.66%을 기록했다.

특히 유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두 배로 내는 유가 인버스 레버리지 ETN의 경우 수익률이 50%를 넘어섰다. 상승폭이 제일 큰 상품은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으로 56.45% 수익이 났다. 이어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H)’이 53.15%, ‘QV 인버스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이 52.19%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유가 상승에 베팅한 상품은 손실이 컸다. 최근 한 달간 원유 ETN·ETF는 전부 20%, 레버리지 ETN의 경우는 37% 가까운 손실률을 나타냈다.

최근 한 달간 유가 관련 ETF·ETN 수익률

※1월 8일~2월 10일 기준

구분	수익률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H)	53.1%
삼성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	56.4%
QV 인버스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52.2%

※출처: 한국거래소

지난해 가을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유가는 최근 5주째 하락세다. 7일(현지시간) 뉴욕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63달러(1.24%) 내린 50.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일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하고 8일 이란이 보복 조치로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WTI 가격은 배럴당 63달러 내외를 형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란 갈등은 급속도로 완화되고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며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에 8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기술위원회가 60만 배럴의 임시 감산을 권고했지만, 러시아가 이에 반기를 들면서 추가 감산 여부는 정해지지 못했다.

증권가에서는 유가 하락세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는 수급 불균형에 빠질 수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유가가 저평가 상태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합체(OPEC+)의 추가 감산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초과공급 국면 해소는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또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원유 수용량은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의 3.0%에 해당하는 300만 배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OPEC+ 기술위원회는 수요 둔화를 대비해 기존 12월 OPEC+의 감산량(총 210만 배럴)에서 추가적으로 60만 배럴을 감산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한진, 부채비율 240%… 4년 만에 최고

한진의 지난해 부채비율이 2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진의 지난해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38.04%로 잠정 집계됐다. 2015년 240.87%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꾸준히 부채를 줄여 150% 미만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200%대 부채비율은 2000년대 들어 2015~2016년에 이은 세번째다.

한진은 지난해 회사채 조달에 적극적이었다. 3분기 기준 총 9회 차에 걸쳐 4300억 원이 넘는 공모채와 사모채 등을 발행했다. 조달금은 대개 택배협력업체 수수료와 렌터카 차량 구매, 유류대금 등 운영자금과 사채 상환 등에 활용됐다.

그 결과 회사채 상환잔액은 2018년 4320억 원에서 5217억 원으로 증가했다.

회사채의 상환 시점을 보면 1년 이하가 700억 원, 2년 이하가 900억 원, 3년 이하가 3304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상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회사채 발행을 통해 비유동부채는 늘어난 대신, 단기차입금을 포함한 유동부채는 줄어들면서 기업 유동성에서는 다소 여유가 생겼다. 또 3분기 기준 한진의 유동자산이 4273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추후 상환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실적의 경우 영업이익이 지난해 들어 분기를 거듭할수록 회복세를 보였지만 리스 회계 기준 변경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매 분기 적자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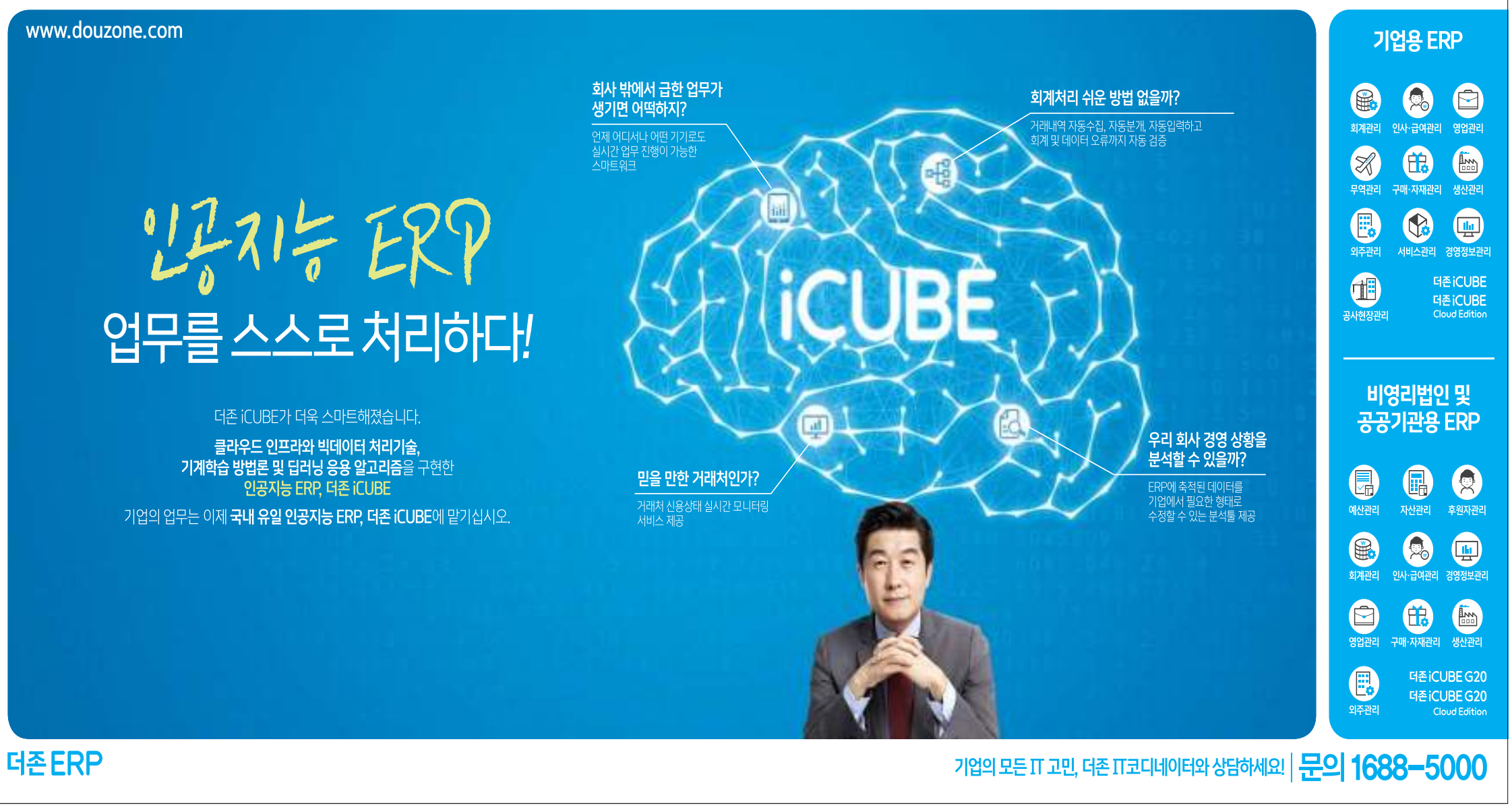
그 결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5.3% 증가한 906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손실은 76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에 한진은 핵심 사업인 택배 물류 사업에 집중하고, 수익성이 저조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대상으로 매각 또는 중단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활용성이 적은 부지와 소규모 출자지분 매각 등을 통해 투자 재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한진뿐 아니라 그룹 관계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도 최근 몇 년 새 부채비율이 급증하며 그룹 전반에 걸쳐 채무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자궁경부전암’ 치료제 임상 순항 ‘코로나’ 진단키트·백신개발 총력

기업탐방

바이오리더스

신약개발 전문기업 바이오리더스의 파이프라인 임상이 순항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99년 설립된 바이오리더스는 신약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이다. ‘BLS-M22’, ‘BLS-M07’ 외 자궁경부 상피이형증 치료제 ‘BLS-H01’ 파이프라인과 이스라엘에 설립한 신약개발 회사 ‘퀸트리젠’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의료기기 전문기업 티씨엠생명과학이 현재 최대주주다.

국내 임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하는 만큼 라이선스 아웃(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전국 16개의 대학병원과 임상 2b상을 진행 중인 ‘BLS-M07’은 2a상에서 이미 환자의 약 75%가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미국 필라델피아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바이오USA, 바이오EU에서 2a상 결과에 대해 글로벌 빅파마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 예다(YEDA)와 현지 합작법인 퀸트리젠을 설립했다. 퀸트리젠은 와이즈만연구소로부터 p53(암 억제 유전자) 관련 기술 및 신약 후보 물질들을 전부 이전받아 항암 신약을 연구개발 중이다.

박영철 바이오리더스 대표는 “희귀성 근육병인 근디스트로피 치료제 ‘BLS-M22’의 임상 1상과 자궁경부전암 치료제인 ‘BLS-M07’의 임상 2b상이 올해 3~4월경 마무리된다”며 “올해 6~7월 중 두 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진단키트 및 백신 개발에 관계사들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티씨엠생명과학은 신종플루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검출 키트 개발 경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용 진단 키트(TCM-Q Corona Ⅲ)를 개발해 이번 달 내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의 긴급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작년 말 72억 유증에도 상폐 위기

한계기업 돋보기

메디파트너생명공학

메디파트너생명공학의 적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2019 회계연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까지 몰렸지만 자본을 확충하면서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파트너생명공학의 전신은 1981년 설립된 내외전기다. 1989년 내외반도체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해 공모 증자를 통해 유가증권에 상장했다. 이후 최대주주가 숱하게 바뀌고 이들이 사명을 변경하면서 40여 년 업력에 바뀐 이름만 12차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주주 변경만 7건이다. 가장 최근은 메디파트너로, 유니온투자조합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최대주주가 됐다. 메디파트너는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업체이며 지분율은 31.14%다. 메디파트너는 회사 인수 후 사명을 핫텍→메디플란트로 바꿨다가 다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메디파트너생명공학 별도재무제표 추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3Q
매출액	166억 원	115억 원	59억 원
순이익	-73억 원	-105억 원	-132억 원
부채비율	127.1%	453.6%	완전잠식

2005년 이후 영업익 적자 지속
작년 3분기 완전 자본잠식 상태
4분기 실적 따라 위험 상황 연출

메디파트너생명공학의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다. 유가증권이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장기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퇴출요건을 채우고도 남는다. 별도기준으로 가장 최근 영업이익을 낸 시점은 2005년으로 15년 전이다. 금액도 1억여 원에 불과하다. 그때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못 내고 있다.

최근 수년간 별도기준 매출은 110억 원대에서 머물다 작년에는 3분기 누적으로 전년보다 40%가량 감소했다. 게다가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은 1억~3억 원에 불과한 반면 매년 지출하는 판관비가 수십억 원이라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없는 사업구조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자와 자산손상 등이 더해져 순손실 규모는 100억 원을 훌쩍 넘기 일쑤였다. 또 누적된 순손실은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와 유상증자에도 자산 손상을 불러왔고, 2014년과 2016년 무상감자로 결손금을 덜어냈다. 그런데도 결손금이 발생해 작년에는 3분기를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장기영업손실에 따른 퇴출 규정은 없지만 자본잠식 관련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기준은 있다. 최근 사업연도에서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을 50% 이상 잠식하면 관리종목에, 전액 잠식이면 상폐 기준에 해당한다. 퇴출을 피하려면 자본 확충이 절실했던 메디파트너생명공학은 작년 말 한 해 결산을 앞두고 총 72억 원 규모 유증에 성공해 퇴출 우려는 일부 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분기 실적 부진 정도에 따라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조남호 기자 spdran@

“에오스 레드, 하반기 해외 진출 추진”

CEO 인터뷰

신현근 블루포션게임즈 대표



블루포션게임즈가 대표작 에오스 레드의 시스템 업데이트에 주력한다. 블루포션게임즈는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만화출판업을 주력사업으로 해오던 미스터블루의 게임 개발 자회사다. 근래 보기 드물게 중소게임사 중 게임 흥행 기록을 세웠다.

신현근〈사진〉 블루포션게임즈 대표이사는 10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의 에오스 레드는 대기업과 해외기업 중심의 게임시장에 신생 중소게임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게임 자체의 성과는 구글스토어 매출 2위 달성과 장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예상치의 몇 배 이상 실적을 기록한 것”이라며 “대형 게임사의 대작들과 정면 승부를 겨루기보다 그들이 공략하지 않는 하드코어 유저를 공략한 것이 흥행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블루포션게임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유저들 간의 거래와 커뮤니케이션 협동과 경쟁이 일어나는 본질의 가치에 집중하는 전략을 에오스레드에 반영했다.

주기적인 업데이트도 유저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꾸준한 신규 콘텐츠 생산을 통한 유저 유지가 흥행 비결 중 하나로 꼽힌다.

회사에 따르면 에오스 레드 유저들은 영지전의 세금 및 보상, 전투 시스템 자체에 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상당수 유저들의 지적에 따라 영지전에 대한 영지 통합작업과 보상 조정, 밸런스 조정 등을 통해 좀 더 경쟁이 심하고 보상이 강한 시스템으로 수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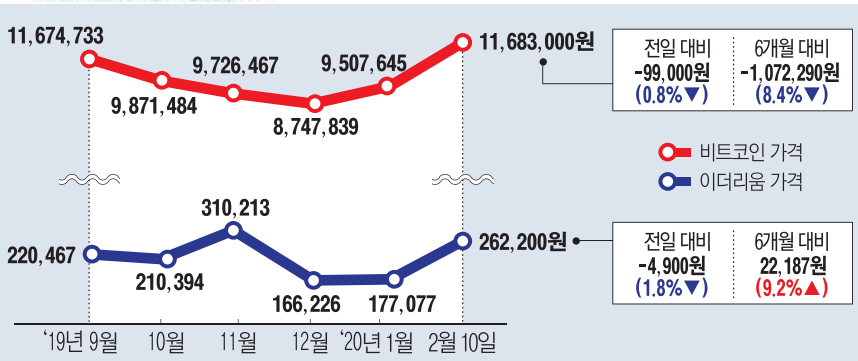
이날 미팅을 함께했던 개발진도 이구동성으로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는 서비스 마켓 확대에 집중하면서, 해외 진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종민 기자 kjm@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2월 10일 17:00, KST)



	전일 대비	6개월 대비
11,683,000원	-99,000원 (0.8%▼)	-1,072,290원 (8.4%▼)
262,200원	-4,900원 (1.8%▼)	22,187원 (9.2%▲)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521,500	-9,000 (1.7%▼)	모네로	99,250	2,250 (2.3%▲)
리플	323	-9 (2.7%▼)	비트코인골드	15,520	-230 (1.5%▼)
라이트코인	87,850	-2,650 (2.9%▼)	이더리움 클래식	13,760	-140 (1.0%▼)
대시	148,300	-1,800 (1.2%▼)	퀀텀	3,066	-74 (2.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부동산 매매 2~3개월 걸리는데… 거래 신고 30일 내 하라고?

21일부터 변경… 어기면 과태료
집값 띄울 거짓신고 줄겠지만
취소나 변경 적용 번거로워져
매수자 잔금 마련 촉박해질 수도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2~3개월 걸리고 특성상 계약 해지와 변동 사항도 더러 있는 만큼 현장에선 각종 변수에 대한 대처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도자가 실거래 신고 기한 안에 계약과 잔금을 마무리하자고 조건을 내걸 경우 매수자의 잔금 마련도 촉박해질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계약 역시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썼다가 취소하면 그동안에는 재량껏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다. 거래계약 시점과 신고 시점이 최대 60일로 벌어져 있어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의 괴리가 발생해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거래 신고 기한 단축은 집값을 올리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 신고를 하는 일명 '자전거래'를 막아 정확한 시세 정보 전달과 부정거래 방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계약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 2~3개월이 걸린다. 이 경우 계약 이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계약사항 변동이 발생해도 이를 조율하고 재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는



애초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60일로 잡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고 기간 단축으로 거래 신고까지 여유기간이 고작 한 달이다 보니 실거래 신고를 일단 진행한 뒤 변경 사항을 추후에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당장 시행을 코앞에 앞두고도 현장 공인중개소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거래 계약 과정이 30일 이내 완료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각종 변수에 대처하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공통 의견이다.

서울 여의도동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정책 시행 효과를 빨리 파악하고, 통계 수집, 가격 동향을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겠지만 실무를 진행하는 현장에선 번거로움이 많을 수 있다"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선 명의 변경이나 계약 취소, 계약 해지 등이 적잖게 발생하는 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으로 업무를 이중으로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에 나서는 일부 매수자 입장에선 자금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거래 기한이 한 달로 단축된다고 해서 잔금을 치르는 기한까지 짧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부 매도자들이 실거래 신고 기한 안에 잔금까지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자고 조건을 걸 가능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엔 기존대로 잔금을 치르면 되지만 매도자가 실거래 신고 기간 이전을 잔금 기한으로 할 경우 매수자 입장에선 자금 압박을 받아 계약 성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을 개인 간 거래로 진행하는 경우엔 실거래 신고 기한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90% 이상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여서 실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 영역의 업무이지만, 그 외 개인 간 거래로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거래 신고 기간 단축은 정부 입장에선 실거래가 현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중개 실무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한남3구역 수주' 다시 붙는 현대·GS·대림

기존 3곳… 삼성물산은 불참
26일 조합원 투표 통해 결정

서울 강북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다시 맞붙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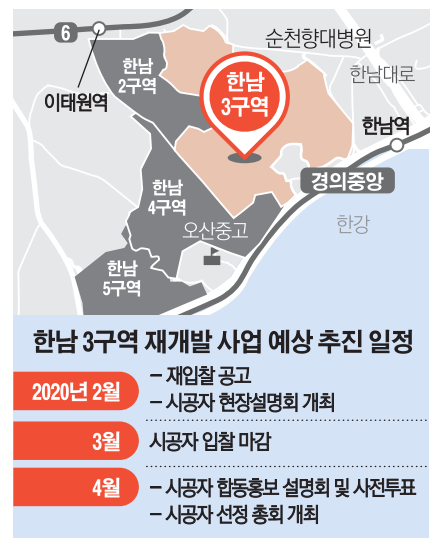
10일 오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과잉 수주전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존 입찰 건설사 3곳만 참석했다.

당초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삼성물산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다음달 27일 본입찰에 나설 수 있다. 조합 측은 4월 16일 합동설명회를 열고 같은 달 26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미 한 차례 과잉 수주로 논란을 빚었던 만큼 기존 3사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수주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합 측도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입찰 조건을 수정하는 등 수주전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한남3구역을 수주하기 위



한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향후 강북권 한강변 정비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장"이라며 "수주전에 뛰어들 3개 건설사 모두 오랜 기간 시공권 확보에 공을 들였던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에 지하 6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총 5816가구(임대아파트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예정 가격은 1조8880억 원으로 3.3㎡당 595만 원이다.

입찰 마감은 3월 27일, 시공사 선정은 4월 26일이다.

문선영 기자 moon@

1월 서울 원룸 월세 평균 55만원… 4%↑

대학가 54만원… 6개월 새 최고

입학·졸업철과 입사 시즌이 겹치면서 원룸 임대료가 두 달 연속으로 올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원룸 월세(전용면적 33㎡ 이하)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평균 55만 원이었다. 전달(53만 원)보다 4% 오른 가격이다. 서울의 원룸 월세는 지난달부터 두 달째 상승세다.

특히 서초구(64만 원)와 용산구(53만 원), 마포구(52만 원)의 월세 오름폭이 컸다. 이들 지역에선 각각 전달보다 월세가 8%가량 올랐다. 도심과 여의도, 강남 등에 직장을 둔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강남구(68만 원)는 월세 상승폭(3%)은 이들 지역보다 작았지만 서울에서 원룸 월세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

지난달 대학가 원룸 월세는 평균 54만 원이었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달(53만 원)과 비교하면 2% 상승했다. 대학가 중에선 서울교대 인근(53만 원)의 원룸 임대료가 제일 비쌌다. 홍익대(51만 원)와 연세대(50만 원), 건국대(49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종화 기자 pbell@

檢 "고객이 호출하면 픽업하는 타다, 콜택시와 같아"

이재웅·박재욱 징역 1년 구형

〈쏘카 대표〉 〈VCNC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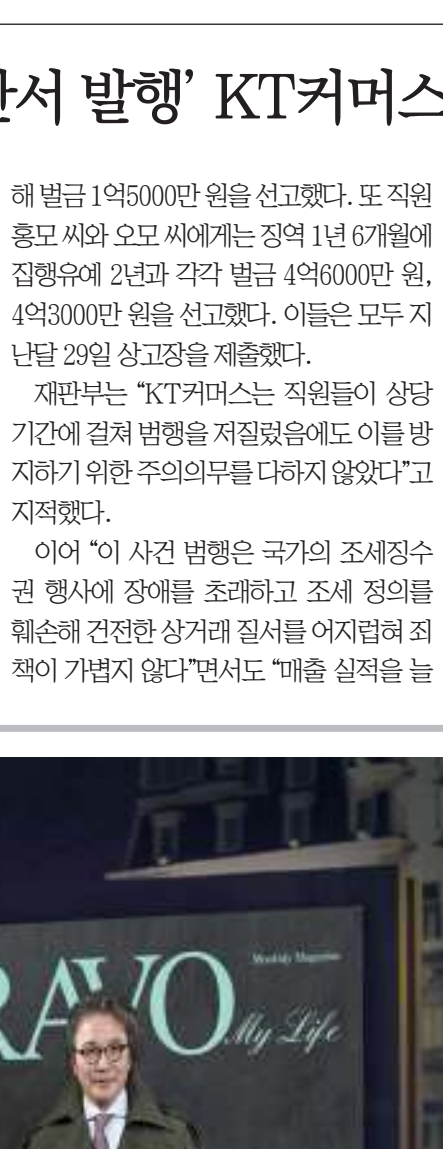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검찰이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재웅(52)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35)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박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자동차 대여 사업이 아니다"며 "타다의 구체적 영업 형태는 기존의 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과 달리 특정 승합차와 운전자를 결합해 미리 지정된 대기 지역에서 불특정 고객이 호출하면 픽업해 운송하는 방식으로 콜택시와 완벽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콜택시를 탄 것으로 인식할 뿐 자신이 차량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타다 이용자는 콜택시 승객과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운전기사 선택권도 없는 점 등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와 명확히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타다가 드라이버(운전기사)들의 근태 관리, 업무 지시, 업무수행 평가, 채용과 해고 등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다"면서 "운수사업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대여 사업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운전기사는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고 밝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및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이러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윤석열 "선거범죄 엄정 수사"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KT커머스 2심도 벌금형

"조세 정의 훼손… 죄책 무거워"
범행 주도 직원들 집유 석방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커머스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직접 관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직원 홍모 씨와 오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억6000만 원, 4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KT커머스는 직원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매출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태블릿PC를 거래하며 주고받은 19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실물이 없는 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이들은 2012년 6월~2013년 9월까지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 총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용 기자 deep@

병원서 열린 재판…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치료적 사법' 도입 후 첫 판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는 '치료적 사법' 절차를 도입한 첫 판결이자 선고공판이 병원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열린 A(68) 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흉기를 숨긴 정황 등을 종합해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면회 온 딸에게 "사망한 아내와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등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9월 A 씨의 주거지를 치매 전문병원으로 제한하는 치료 목적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 치료적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치매 환자에게 내려진 첫 보석 결정이었다.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치유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판결 선고 장소도 법정이 아닌 병원으로 정했다. 공판 절차는 법정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박원순 서울시장 '신종 코로나' 민생대책 강화 특명

"확진자 다녀간 곳 불안감 없애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방문
"방역 이후 '클린존' 선포해야"
생계 위협 자영업자 파악도 지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마련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그동안 방역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관련 민생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신종 코로나 사태가 3주째 지속되면서 특히 자영업자의 생활,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국 관광객이 줄어 문을 닫거나 어려워진 업체를 파악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방역을 마친 곳에 대해서는 '클린존'을 선포해 시민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동안 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 다산콜센터(120)로 접수된 상담 전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민 불안이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120으로 접수된 신종 코로나 관련 상담 건수는 1만2636건이다.

이날 배석한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상담 접수가 많을 땐 하루 최대 1400건이 접수됐는데 8일 503건, 9일 252건으로 급감했다"며 "지난 주말 3일간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았고 완치자도 총 3명이 나와 시민 불안이 해소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2개 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상황 대응을 위해 서울시 인력 609명을 비롯해 자치구별 상황실, 보건소, 선별진료실 등 근무인력 총 1773명을 투입했다.

박 시장은 "방역 전문가가 안전해야 시민 안전을 지원할 수 있다"며 "여기 있는 직원이 과로하지 않고 면역력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인력을 투입해 달라"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7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3명이 퇴원했으며 현재 24명이 격리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다. 또 확진자 1명(11번째 확진자)이 증상이 호전된 후 실시한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퇴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828명, 의사환자(감염 의심환자)는 459명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도봉로·지봉로·공항대로 등 총 29.32㎞

서울시, 40곳 전선 지중화

예산 3배 늘어난 '1500억'
정비 대상 70% '동북·서남권'
"균형발전·도시미관 개선 기대"

서울시는 올해 1500억 원을 투입해 40곳을 대상으로 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북구 도봉로, 종로구 지봉로, 강서구 공항대로36길 등 총 29.32㎞ 구간이 대상이며 지난해 12곳(7.87㎞)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됐다. 예산도 작년(458억 원)보다 3배가량 증액됐다. 지중화 사업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가 25대 25대 50 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는 지역 간 지중화율 편차 완화에 역점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했다. 지중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북권(20곳)과 서남권(8곳)이 전체의 70%다. 정비 규모도 총 29.32㎞ 중 동북권(13.66㎞)과 서남권(6.73㎞)이 약 69%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신청이 아닌 시가 주도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역균형, 보행환경 개선, 도심경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는 물론 역세권,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 지중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주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시민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전역 지중화율은 60.0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약 3790억 원을 투입해 87㎞에 달하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가공배전선로 평균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2019년 59.75%까지 개선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중화 사업은 시민의 보행안전, 도시미관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걷는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서울 전역의 지중화율 지역 편차를 완화하고 해외 선진 대도시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동작구, 안전·복지 등 7대 시책 강화

서울 동작구는 10일 주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2020년 주요 시책 및 정책,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동작구는 안전 분야를 강화한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100개소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2만 개를 지원한다. 이번 해 처음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재난별 인식도 검사를 한다.

복지·환경 분야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안심 거주 공공주택 90호 공급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지역 확대 △자치구 최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구비 지원 등이 있다. 이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확충 △맘스하트카페 5개소 확대 △만성간질환자 A형간염 예방접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성북구 "주거 사각지대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상·금액 확대

서울 성북구가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10일 성북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 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기준 약 7900가구의 임차 가구가 매월 14억 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 또 27가구가 집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게 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해 임차급여와 집수리 지원액을 인상해 지급한다.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된다. 최대 지원액이 △1인 가구 26만6000원 △2인 가구 30만2000원 △3인 가구 35만9000원 △4인 가구 4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 인상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차로 갈 수 없는 골목길도 펴서 달리고 접어서 보관

문앞까지 편하게 모빌리티의 완성


BMW 모토라드 X2 시티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목적지 인근 이동수단 바꾸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주목

BMW X2 시티·아우디 e-트론 차량에 '빌트인' 방식 자동충전

현대차 아이오닉 전동 스쿠터 1회 충전으로 약 20㎞ 주행

최근 자동차 회사들은 '모빌리티(Mobility)'를 강조한다. 자동차에서 시작한 '이동성'을 완성하겠다는 뜻이다.

자동차는 운전자에게 재미와 가치, 감흥을 전달한다. 브랜드가 존재하고, 출력을 포함한 성능이 수치로 대변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해 '이동'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은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한 이래 변함이 없다.

현대차그룹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름이 거창할 뿐, 최종 목적지까지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목표다.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1마일(1.6㎞) 구간서 이용 = 최근에는 모빌리티 전략에 마침표를 찍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 모빌리티'가 관심을 끈다. 라스트 마일이란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직전 1마일을 의미한다.

도심 교통정체의 대부분이 최종 목적지 인근에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로 목적지 인근까지 이동하고, 나머지 1마일의 짧은 거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는 개념이다.

1인용이 대부분이고, 장기적으로 2인용도 구상하고 있다. 때문에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고도 불린다.

도심 정체를 뚫기 위해 자동차 회사들이 수직이착륙 비행체를 만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일찍 도착하는 게 제1 목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수단이 '전동 스쿠터'다. 작은 바퀴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손잡이로 방향을 바꾸는 형태다. 물론 크기가 작은 만큼 전동식이 대부분이다.

완성차 메이커들이 뛰어든, '메이커별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알아보자.

◇BMW 모토라드 X2 시티 "나도 엄연한 BMW" = 우람한 바이크를 생산하는 BMW


아우디 e-트론 스쿠터

모토라드에서 만든다. 전동 스쿠터로 바라보기에 제법 커다란 바퀴가 인상적이다. 그만큼 주행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리튬-이온 방식의 408㏗ 배터리를 갖춰 최고속도는 시속 25㎞에 달한다. 한번 완충하는 데 약 2시간이 걸리고 이때부터 최대 35㎞를 달릴 수 있다.

전동 스쿠터 가운데 단 바퀴 크기는 단연 독보적이다. 노면 진동을 걸러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주행 안정감도 여느 전동 스쿠터를 크게 앞선다.

다만 욕심만큼 바퀴 크기를 키우고 배터리 능력을 확대하다가 무려 20㎏에 달하는 무게에 발목이 잡혔다. 여느 전동 스쿠터가 1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거구다. 유럽 현지에서 2800유로(약 350만 원)에 팔린다. 쉽게 들고 다닐 만한 크기와 무게는 아니다.

◇아우디 e-트론 스쿠터 "삽자루 쥐고 고고씽" = 아우디 전기차 라인업 'e-트론'의 영역이 전동 스쿠터까지 확장됐다.

네바퀴굴림 콰트로를 강조해온 브랜드답게 바퀴는 4개로 안정감 있게 달린다. 바퀴로 조향하기보다 주행 중 자이로센서가 운전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방향을 바꾼다.

BMW X2 시티보다 바퀴가 작아 안정감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무게는 절반 수준인 12㎏에 못 미쳐 상대적으로 가볍다. 향후 자사의 전기차에 e-트론 스쿠터를 옵션으로 얹을 계획이다. 올 연말 유럽에서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푸조 m-크로 "차든 스쿠터든 무조건 예뻐야 해" = 푸조는 2016년 신형 3008을 공개하면서 트렁크 수납 전동 스쿠터를 옵션으로 마련한 것이다.

스위스 업체인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와 공동 개발한 전동 스쿠터는 킥보드에 가깝게 디자인했다. 무게도 8.5㎏으로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 편하게 손으로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구동 방식은 '인 휠 모터(In-wheel Motor)' 형식이다. 1회 충전으로 약 12㎞를 주행할 수 있다. 최고시속은 25㎞ 수준이다.

푸조 전동 스쿠터 옵션을 선택할 경우 트렁크에 스쿠터를 고정할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도 달아준다. 물론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자연스레 충전도 가능하다.

◇가장 가볍고 휴대가 편한 현대차 아이오닉 스쿠터 = 현대자동차도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위해 전동 스쿠터를 내놨다.

친환경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한 '아이오닉'의 브랜드를 앞세운 전동 스쿠터다. 전동 스쿠터를 지정된 수납공간에 장착하면 자동차의 전기를 활용해 자동으로 충전된다. 사용자는 목적지에서 충전된 전동 스쿠터를 꺼내 간편하게 타고 이동할 수 있다.

10.5Ah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얹고 1회 충전으로 약 20㎞를 주행할 수 있다. 3단으로 접혀 휴대가 편하다. 무게는 7.7㎏으로 현재 동종 제품 중 가장 가볍다. 2021년부터 양산차에 옵션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스쿠터

푸조 m-크로

차간거리·속도 유지하는 '군집자율주행' 교통체증 해결사

GM이 선보인 'EN-V' 라스트 모빌리티와 자동차 결합
실시간 통신하며 군집주행… 전동 스쿠터보다 '진일보'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1인용 이동수단은 '모빌리티 시대'의 마침표다.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 GM이 고안한 새 아이디어는 다른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와 궤가 다르다. 자동차에서 스쿠터를 갈아타는 시대가 지나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군집주행'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보다 한 시대 앞서나간 콘셉트이다. 이미 10년 전에 쉐보레 브랜드로 선보인 'EN-V(Electric Network-Vehicle)'가 주인공이다.

EN-V는 정차 때 3개의 바퀴가 안정적으로 승객의 승하차를 돕는다. 출발하면 승객석이 위로 올라서면서 좌우 2개의 바퀴로 달린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히 목적지 인근까지 이동할 1~2인용 탈것의 개념을 넘어선다.

목적지 인근에서 라스트 모빌리티로, 그리고 일반 도로에 진입하면 '플래툰 드라이빙', 이른바 군집주행으로 자동차의 기능을 해낸다.

도로에 나오면 다른 이동체와 앞뒤로 결합한다. 차간거리를 스스로 설정해 달리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일반도로에서는 열차의 앞뒤를 잇는 '차량'처럼 달리는 셈이다.

물론 자율주행은 기본이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정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목적지 근처까지 자동차처럼 달리고,


GM이 고안한 'EN-V'는 앞뒤 차와 통신하고 GPS를 이용해 '군집주행'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차량공유' 실증 사업도 마쳤다.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다. 사진제공 미디어GM

최종 목적지까지 라스트 마일까지 책임진다는 뜻이다. 목적지에 내리면 EN-V 스스로 주차장을 찾아들어가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EN-V를 개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서다.

자동차 정체는 운전자마다 차간거리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물리적으로 제각각의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움직인다. 운전자는 심리적으로 앞차와 간격이 벌어지면 이를 줄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다. 간격이 너무 좁혀졌다면 다시 속도를 줄여 감속한다. 일정 수치의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자동차가 앞차와 거리를 좁혔다 늘리기를 반복하면 뒤쪽으로 갈수록 정체가 빚어지기 마련이다.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고 군집주행이 안정화되면 자동차 정체가 크게 줄어든다. 앞차와 바짝 붙어 열차처럼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 EN-V는 최적의 탈것이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서 자연스럽게 다른 EN-V와 소통하며 여러 대의 군집주행에 합류한다. 목적지 인근에서는 자연스럽게 출구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물론 강력한 네트워크 연결성을 앞세워 다른 자동차와 5G 통신은 물론 GPS를 통해 실시간 교신하는 게 필수다.

1인용 전동 스쿠터가 이제 막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면, GM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이보다 한 시대 더 앞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 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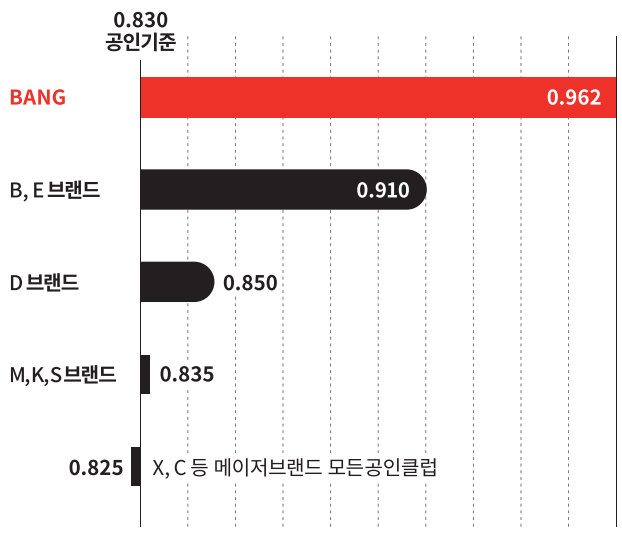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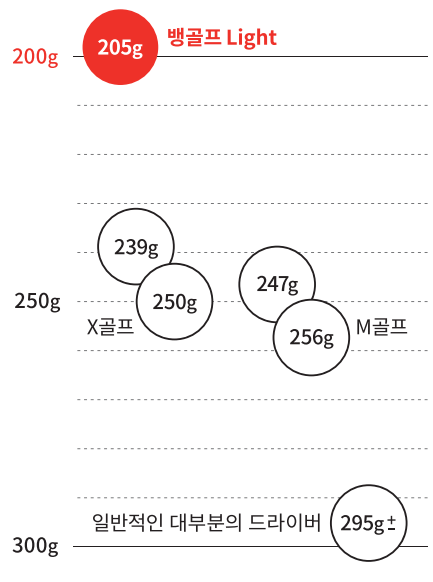
VVIP 고객님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 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 드 무 게 조 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주)뱅골프코리아 | 대표전화 1544-807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 www.banggolf.co.kr

“혁신하는 한국 금융시장, 새 비즈니스 기회의 땅”

은성수 금융위원장, 외국계 금융사 대표 간담회

핀테크 스타트업 협업·기업 중심 자산운용 시장 등 꼽아
참석자들 “계열사 정보공유·내부규제 완화해달라” 건의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혁신을 거듭하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유광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7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 기업 중심 자금전환을 통한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 연기금의 지속적 성장은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국내 금융중심지 추진 여건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제기된 외국계 금융회사의 주요 건의사항과 관심사에 대한 처리상황을 소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은행 54개, 증권 23개, 자산운용 27개, 투자자문 9개, 보험 29개, 여전 13개, 저축은행 8개 등 총 163곳에 이른다.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 67곳, 유럽에서 54곳, 아메리카에서 36곳, 호주에서 5곳, 아프라카에서 1곳 순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가 3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21곳), 독일(14곳)·프랑스(14곳), 영국(11곳)·중국(11곳), 싱가포르(10곳) 등이 뒤를 따랐다.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는 계열사 간 정보공유, 내부통제 관련규제를 완화해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법·규정에 대해 금융당국의 해석과 의견이 바뀌는 등 규제체계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소관부서와 공유해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는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영업활동 예외상황 인정, 가이드라인 배부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예외적인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조치 등 유사한 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은성수(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일자리委 부위원장에 김용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정상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왼쪽 사진〉 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오른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를 거쳤다. 이후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연구전문위원,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 단장,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을 역임한 뒤 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상조 교수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을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이기도 하다.

정일환 기자 whan@

서진석 EY한영 대표 사임



서진석 EY한영 법인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9일 EY한영에 따르면 서 대표는 “법인의 목표인 비전(Vision) 2020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쉼없이 달려왔다”며 “이제 법인에서 대표로서의 제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2015년 초 대표로 선임된 후 5년간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서 대표 재임 기간 EY한영은 매년 두 자릿수대의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성장의 바탕에는 협업과 품질 우선주의 조직 문화가 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 대표는 이후 고문직으로 남아 EY한영과의 인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보맵, 배승호 부대표 영입



보맵은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최고전략책임자(CSO)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의 배승호 전 상무를 부대표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배승호 부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푸르덴셜생명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거쳐 2012년부터 베인앤드컴퍼니에서 상무를 지냈다.

배 부대표는 푸르덴셜생명에서 전략기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재무자문, 베인앤드컴퍼니에서 대형 금융그룹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 프로젝트를 이끈 금융 분야의 전문가다.

조성준 기자 tiatio@

안태범 이상운동질환학회장 취임



경희대학교병원은 신경과 안태범 교수가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다. 안 교수는 미국이상운동질환학회 등에서도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KISA, 첫 사내벤처 출범

AI+챌린지 플랫폼 사업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선발한 제1기 사내벤처 업무협약 및 출범식을 10일 나주본원에서 개최했다.

내부공모와 내·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제1기 사내벤처 ‘Security AI+’팀은 정보보호 R&D,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투자유치·산업 전문가로 구성됐다. 사내벤처팀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경연(Challenge)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AI+ Challenge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석환〈사진 왼쪽 두 번째〉 원장은 “사내벤처 출범을 통해 원내 혁신문화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기자 che@

최윤석 사장 “행복경영 출발점은 안전”

사내 스키노뉴스 인터뷰…“안정조업이 경쟁력이며 지역사회 신뢰의 길” 강조

“역량·시스템·설비관리에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과 기법을 적용해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다.”

최윤석〈사진〉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 보도 채널 ‘스키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정조업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과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안정 조업 기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최 사장은 SHE(안전·보건·환경)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일례로 ‘그린밸런스 2030 전략’을 들었다.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SK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는 “SK인천석유화학은 2013년 시작한 공장 증설을 계기로 회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관리현황을 조사하는 ‘안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며 “지역 공동의 환경·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환경부 한강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안전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HE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사례도 들었다. 그는 “SK인천석유화학은 미생물 분석기술을 활용한 폐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솔루션은 물론, 증강현실(AR)을 이용한 구조물 안전 점검 기술 등 신기술들을 활용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이 밖에도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과 CDM 사업 등 여러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두 가지 실천의지(Commitment)도 언급했다. 그는 “SK인천석유화학이 추구하는 행복경영의 근간은 무엇보다 ‘안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 실천을 위한 두 가지 행복 실천의지를 다졌다”며 그 첫째로 주 1회 이상 구성원들과 함께 ‘안전행복토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올 초부터 각 생산 부서의 총 기술장을 시작으로 SHE 기술·관리 유닛 등 구성원들의 안전과 밀접한 조직부터 ‘안전행복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입수 보행하지 않기, 계단 난간 잡기, 보행 중 휴대폰 안 보기, 공정 내 보안경 착용, 사내 제한속도 준수, 교차로 정지선 지키기 등 ‘행복을 만드는 안전습관’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대외경제국장 류상민

◆**환경부** ◇실장급 승진 전보 △4대강 조사·평가단장 김영훈 ◇국장급 전보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 박용규 △물통합정책국장 신진수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가족정책관 김권영 △교육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정심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감사담당관(개방형) 이영택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재환경과장 김윤우

◆**통계청**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이영보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양경진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이주원

◆**금융결제원** ◇1급(부장) △고객금융부장 고원상 △해외협력센터장 고해록 △비서실장 문영석 ◇2급(수석부부장) △금융데이터융합센터장 김시홍 △어음지로부장 김하균 △인증기획부장 강인양 △리스크관리실장 이동욱 △신사업개발실장 조형섭 △경영기획부 조직관리팀장 임찬혁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장 김대중 △인증기획부 인증개발팀장 김용준 ◇3급(부부장) △리스크관리실 리스크대응팀장 최영준 △금융결제연구소 신사업개발팀장 이한욱 △해외협력센터 국제교류팀장 문윤정 △인증업무부 인증인프라반장 임기철 △인증기획부 미래인증개발팀장 오연준 △인증기획부 인증기획팀장 정성아 △IT기획부 IT기획팀장 설정환 △경영기획부 김정훈 △금융결제연구소 황선철 △금융정보업무부 하정석 △어음지로부 이은 △차세대인증부 구헌 △IT개발부 천장욱 △IT운영부 윤태권 진상현 △정보보호부 신휴근 ◇4급(과장) △경영기획부 김정균 정현수 △고객금융부 이양상 △금융정보업무부 송수경 △인증업무부 임윤정 △IT개발부 이종민 정윤호 심현호 이광재 △IT운영부 김보영 △e사업전산실 김민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장 조규찬 △과기단지운영단장 정욱수 △비서실장 김희철 △사회가치추진실장 김경훈 △홍보실장 홍진혁 △감사실장 서승모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장 조용석 △″ 성과혁신실장 박영하 △″ 정보관리실장 강동호 △투자사업본부 미래사업처장 곽진규 △″ 환경사업처장 현상철 △운영사업본부 관광사업처장 이성호 △″ 박물관사업처장 강봉수 △″ 공공주택처장 문영호 △면세사업본부 면세기획처장 오정훈 △″ 상품운영처장 천구 △″ 영업처장 윤미향 △과기단지운영단 산업육성팀장 성낙창 △″ 운영관리팀장 진여훈 △″ 제2첨단팀장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파견 박근수

부음

▲**김숙자** 씨 별세, **이광원**(전 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기술국장) 씨 배우자상, **이준구**(JW홀딩스 글로벌사업본부장) 씨 장모상 = 1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12일 오전 7시 20분, 02-3010-2411

▲**심재련** 씨 별세, **심영보**(전 서울은행 서소문지점장)·**승보**(보성정밀 대표)·**정보**(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인보**(보성테크 대표) 씨 부친상, **심규태**(유니포인트 부장) 씨 조부상 = 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02-2258-5940

▲**조복환** 씨 별세, **조규웅**(자영업)·**규용**(가평축협 조합장)·**규관**(가평군자치행정과장)·**규형**(가평군 군정홍보팀) 씨 부친상 = 10일, 가평농협효문화센터 1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31-581-4441

추창근 칼럼



논설실장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인구감소는 이제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구조 진화의 관점에서 미래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가용(可用)자원을 투입해 산출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 인구가 줄어도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이나 서비스 창출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인구지진'(age-quake)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인구 증가가 사회 전반에 초대형 지진과 같은 파괴적 충격을 가져온다는 경고다. 영국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1999년 처음 쓴 말로, 고령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격변을 예고했다. 2006년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변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을 300년 뒤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로 예측했다. 5000만 명 인구가 2305년엔 겨우 5만 명밖에 남지 않는다며 '코리아 신드롬'으로 이름 붙였다.

국내의 분석도 다르지 않다.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당시의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입법·정책 수요예측 모형을 돌린 결과 한국인은 2056년 4000만 명, 2074년 3000만 명, 2097년 2000만 명, 2136년 100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172년 500만 명에서 2256년 100만 명, 2379년 10만 명으로 쪼그라든 뒤 결국 2750년 멸종한다는 계산이었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 지금 다시 전망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다.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낮다. 가임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아이가 1명도 안 되는 '출산파업'이다. 2019년 전망치는 더 줄어든 0.94명이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출산율은 2.1명인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출생아는 반토막 이하의 기하급수로 감소한다. 반면 나이 먹어 가는 윗 세대 노령인구의 비중이 반비례로 커진다. 이 '잿빛 사회'의 끝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소멸이다.

젊은 인구가 줄면서 생산력이 감퇴한다. 경제주체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억제한다. 수요 감소로 투자가 쪼그라들면서 경제성장이 후퇴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 내는 인구는 줄고, 노인복지 등을 위해 나가는 돈은 급증한다. 결국 재정이 거덜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작년 20.4명이었다. 생산인구(15~64세) 5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의 생계를 책임진 구조인데, 20년 뒤에는 2명, 40년 뒤에는 1명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오늘날 출산을 피하는 한국의 현실은 불가항력이다. 청년의 취업과 결혼부터 힘든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과거 고도성장시대의 '자산'이었던 자식은 지금 '비용'이다. 미래의 불안만 커지고 무한경쟁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쳐 독립시키기까지,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부모의 무한지출을 요구한다.

정부의 어떤 출산장려 정책도 먹히지 않는 이유다. 정부가 2006년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이후 작년까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줄잡아 150조 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상황은 악화일로다.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비교적 성공한 프랑스나 스웨덴 등을 벤치마킹한다고 애썼지만, 사회구조가 다른 이들의 사례가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우리의 출산율 제고 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재앙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통계청 집계에서 작년 11월 한국의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었다. 출생아 수 2만3819명에 사망자 2만5438명으로 인구가 1619명 줄었다. 11월 인구감소는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추세로 보아 올해 연간으로 인구가 자연감소로 돌아서는 데드크로스를 맞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암담한 미래다. 저출산은 노동이나 자본에 기댄 생산요소투입형 경제를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인구감소는 이제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구조 진화의 관점에서 미래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가구소득이 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도 많다. 가용(可用)자원을 투입해 산출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 인구가 줄어도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이나 서비스 창출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인구감소 대응의 발상을 바꾸고, 정책 패러다임을 국민경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경제·산업구조의 혁신으로 일대 전환하는 것이 그 방향이다. 벌써 많이 늦었다.

정책발언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글로벌 가치사슬, 신북방에서 길을 찾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발동한 반도체에 투입되는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와 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군에서 제외한 조치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소싱 전략에 경종을 울렸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차질로 자동차 등 국내 업계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과 함께 이 같은 통상, 산업환경의 급변은 우리 산업의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점검하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준다. 이에 대한 방안을 찾고자 필자는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했다.

맹인모상(盲人摸象).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말로, 큰 코끼리의 특정 부위만을 느끼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역동적인 역사와 다양한 이미지로 러시아는 우리에게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러시아 하면 불곰이 떠오르지만, 러시아 국장은 유럽과 아시아를 상징하는 머리가 두 개 있는 쌍두 독수리이다. 한국에 잘 알려진 러시아 문호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지만, 러시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는 작가는 푸시킨이다. 또 극동 지역은 항일투쟁, 발해 등 자랑스러운 역사와 함께, 자유시 참변, 고려인 강제이주 등 아픈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다.

러시아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필자가 이번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미래 신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향한 러시아의 열정이다. 스베르방크는 러시아 1위 은행으로서 시가총액은 2016년 러시아 가스 최대 공기업인 가스프롬을 추월했고, 주가는 지난 5년간 4배 이상 상승했다. 주가의 상승 배경에는 혁신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있다. 스베르방크는 은행에 특화된 인공지능(AI), 보안기술 등의 강점을 활용해 러시아 1~3위 인터넷 기업들과 제휴해 온라인 음식·식료품 배달, 택시·카셰어링, 영상플랫폼, 보건·이헬스, 클라우드, 안면인식 등 새로운 사업 분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 중이고, 주차장 자동검색, 차량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 서비스가 일상화돼 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률도 이미 2016년 제정한 바 있다.

러시아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만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 사랑을 위한 결투로 38세에 목숨을 잃은 푸시킨, 사랑을 위해 황제와도 친한 직속 상관을 공격해 20년간 감옥살이를 감수한 '러브오브시베리아'의 주인공 톨스토이와 같은 뜨거움과 열정이 러시아인들에게는 잠재해 있다. 이러한 러시아이기에 신산업과 디지털 경제로의 발걸음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열정과 예술성은 우리나라 국민의 역동성과 가장 잘 어울리고 양국의 기술과 산업은 상호 보완적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큰 분야는 부품·소재·장비 분야이다. 러시아는 기초화학과 소재 분야의 원천기술이 우수하고, 우리나라는 응용·제조기술과 상업디자인이 우수하니 상호보완적인 기술협력 잠재력이 높다.

자율자동차, 바이오·이헬스, 로보틱스 등 신산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수학 강국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에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응용소프트웨어, 제조기술 등이 러시아의 전통기술과 융합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모델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융합형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협력도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등 온라인에 기반을 둔 플랫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유통, 병원, 플랜트 등 전통적 융합·복합산업에서의 협력 모델도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 쌍두 독수리가 디지털의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려 하고 있다.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탄탄탄'으로 대변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상외교 성과를 가시화해 우리나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고리를 단단하게 보완해감으로써 올해를 명실상부한 신북방의 해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기자수첩



이정필 자본시장2부/roman@

'착한 기업'의 선한 영향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가 앓고 있다. 지구촌이 하나로 묶인 상황에서 확산 속도는 공포 수준이다. 당장 중국의 부품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무디스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2.5%로 낮췄다.

꼭 부정적일까. 때론 세계가 '하나' 되는 강력한 힘을 낸다.

'인디고고', '아이스버킷챌린지'가 좋은 예다. '아이스버킷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기업 총수, 운동선수와 영화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기부문화를 널리 전했다.

국내에서도 볼 수 있다. '선한 영향력' 가게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파스타 집을 운영하는 오인태 사장의 선행(결식아동 무료 음식 제공)이 방송과 유튜브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착한 가게로 나비효과가 파생되는 중이다.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도 '선한 영향력'은 힘을 얻는다.

수익이 나는 따뜻한 투자가 모토인 대성창업투자는 150억 원 규모의 임팩트펀드를 조성했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초기기업이 대성창투 임팩트펀드의 투자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해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우물 안 개구리' 수준도 못 된다.

벤처캐피털(VC)은 그 특성 자체로 경제 선순환에 일조하는 역할을 한다. 뛰어난 기술력이나 콘텐츠를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십시일반(十匙一飯). 혼자선 불가능해도 여럿이 힘을 모으면 가능한 일이 된다. 더 많은 '임팩트펀드'가 나와 위축된 착한 기업·사회적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 본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휘트니 휴스턴 명언

"내 삶의 가장 큰 악마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미국의 가수 겸 배우. 풍부한 성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알앤비, 댄스음악, 가스펠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미국의 머라이어 캐리, 캐나다 가수 셀린 디옹과 함께 '1990년대 최고의 여성 보컬 3인'으로 불린 그녀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963~2012.

☆ 고사성어 / 고굉지력(股肱之力)

허벅지와 팔뚝의 힘, 즉 온 몸의 힘이라는 말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가리킨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 원전. 진(晉)나라 헌공(獻公)이 애첩 여희(驪姬) 소생인 나이 어린 해제(奚齊)를 후계자로 세울 때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태부(太傅) 순식(荀息)에게 해제 보좌를 명하자 답한 그의 말에서 유래했다. "신은 고굉의 힘을 다하고[臣竭其股肱之力]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성공하면 군주의 명 덕분일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죽음으로써 잇겠습니다."

☆ 시사상식 / 홧김비용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소비하는 비용을 가리키는 신조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값을 많이 지출한다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 화장품을 새로 사는 등 계획에 없던 즉흥적인 소비를 일컫는다.

☆속담/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지조 없이 아무에게나 형편에 따라 아부한다는 뜻.

☆ 유머 / 환자의 하소연

벌목공이 톱을 잘못 다뤄 손가락 열 개가 잘려 나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가 "잘린 손가락들 주세요. 그걸 봐야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아요"라고 하자 환자는 못 가져왔다고 말했다.

의사가 "21세기 첨단의학으로 잘린 손가락 봉합수술 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까?"라고 짜증내자 환자의 하소연. "그 손가락을 뭐로 집는단 말이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헌

논설실 (02)799-2669
자본시장1부 (02)799-2647
산업부 (02)799-2644
정치경제부 (02)799-2663
자본시장2부 (02)799-2648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사회경제부 (02)799-2612
금융부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국제경제부 (02)799-6741
부동산부 (02)799-2637
뉴스랩부 (02)799-2664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또 도진 금리인하 만능주의

데스크칼럼



김 남 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짜~장가 엄청난 기운이 (중략) 당당하게 지구를 지킨다. 짱가 짱가 우리들의 짱~가."

1973년 일본에서 제작되고 1976년 한국에서 방영된 만화 '우주소년 짱가'의 노랫말이다. 가사처럼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나 당당하게 지구를 지켰던 짱가에 어린 시절 열광하곤 했었다.

채권시장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대까지 떨어지며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 1.25%에 바싹 다가섰다. 통상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가 높고, 기준금리보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30bp(1bp=0.01%포인트)가량 높은 것이 정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2월 금리인하를 100% 반영하고도 남은 것이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위축되는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현대기아차 공장이 멈춰서는 등 제조업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벌써부터 1월 경제성장률(GDP)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자가 나온 한 달 뒤인 2015년 6월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한은의 전례도 예로 들고 있다. 당시 한은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었다. 반면, 통화정책은 이미 몇 가지 이유로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우선, 통화정책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 이는 한은은 물론이거니와 연구기관에서도 인정한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통화정책 파급 메커니즘이 과거 같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작년 9월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08년과 같은 경기 침체가 재발할 경우 경기부양효과가 낮아진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문제도 여전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 직전 문재인정부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말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놨고, 문재인 대통령도 올 초 신년사를 통해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금통위원도 최근 "금리인하는 상류에 있는 저수지에서 수문을 열고 하류에 있는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다"며 "결국 문을 열고 부동산이라는 논에만 물이 들어가질 않길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로 환율도 요동치는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3일 한때 1198.5원까지 치솟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종가(1168.7원)와 비교하면 무려 29.8원(2.55%)이나 급등한 것이다. 10일 현재 원·달러는 1190원을 중심으로 등락 중이다. 외환당국과 외환시장에서는 1200원을 자본유출의 주요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상승을 부추길 금리인하를 단행하긴 어렵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에 와 있는 것도 변수다. 이미 실효하한을 우려할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 선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한다면 한은으로서는 쓸 만한 카드가 사실상 없다.

끝으로, 메르스 때와 달리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앞서 일부 금통위원과 한은 고위관계자도 "메르스 때는 메르스도 있었지만 경제상황이 나빠질 때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인하를 단행했었다"며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었다"고 평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그 파장을 가늠키 어렵다는 점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은 일견 타당할 수 있다. 다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짜짜짜짜' 하고 나타나는 짱가처럼, 금리인하 만능주의가 타당한지는 곱씹어볼 대목이다.

사족 하나를 단다면, 현시점에서 한은이 대응을 한다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피해를 보는 업종을 지원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kimnh21c@

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작년 세금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빚도 740조8000억 원을 넘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를 확정했다. 작년 총세입(국세+세외수입)은 402조 원으로 예산 대비 2조1000억 원 부족했다. 국세가 1조3000억 원, 세외수입이 8000억 원 모자랐다. 총세입 결손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총세입은 2015년 이래 계속 흑자를 기록했었다. 반면 세금 씀씀이는 커져, 작년 총세출이 39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 원(9.0%)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도 작년 한 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 원 쪼그라든 규모다.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은 건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정부 예상보다는 7조1000억 원(9.1%) 감소했다.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납부액이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법인세 세수 여건은 올해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반면 정부의 재정정책은 줄곧 확장 일변도다. 줄어드는 세수의 부족은 빚으로 메워야 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작년 740조8000억 원에서 올해 805조2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랏빚은 이게 다가 아니다. 700여조 원의 국가채무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증채무나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 충당을 위한 잠재부채, 공기업 채무 등은 빠진다. 이를 포함하면 부채 규모가 1700조 원을 훨씬 웃돌아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경제가 가라앉는 상황에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로 재정확대는 물론 중요하다. 적기(適期)에 필요한 곳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건 재정 지출이 생산적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경기를 살리는 효과와 재정확충 기반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재정지출 구조가 그렇지 못한 것이 근본적 문제다. 생산성과 무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방식의 소모적 복지지출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공무원 증원 등에 세금을 퍼붓고 있다. '재정 포퓰리즘'이다. 세수 기반은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짐이다.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배준호의 세계는 왜?



'신종 코로나 영웅' 리원량의 죽음

국제경제부 차장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을 처음 세상에 알린 중국 의사 리원량이 7일(현지시간) 자신도 신종 코로나에 걸려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고(故) 리원량의 숭고한 넋을 기리면서 다시금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기게 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의사 동창 7명이 있는 웨이보 대화방에 신종 코로나 진원지로 여겨지는 화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확진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글을 올려 중국에서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나 이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중국 공안에 끌려갔다가 반성문 성격의 '훈계서'를 쓰고 풀려났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가 최초로 포착된 시기는 지난해 12월 초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초부터는 주요 외신들도 '미스터리 폐렴'이라며 신종 코로나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춘제(설날) 연휴를 전후해 우한 등 후베이성 지역을 봉쇄하는 등 비상 조처를 하고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지기 전에 이미 신종 코로나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계속 흘러나온 것이다.

만일 중국 정부가 초기에 신종 코로나를 덮어두기보다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행동에 들어갔으면 전염병 확산 충격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이슈로 터지기 전인 지난달 8일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전염병에 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소식을 전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 것보다 정보 흐름을 차단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이때부터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재앙이 될 조짐은 뚜렷해진 것이다.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영웅'인 리원량의 죽음을 놓고도 이해할 수 없는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혼선을 빚게 했다. 처음 리원량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것은 6일 밤이었다. 글로벌타임스 등 일부 중국 관영 언론들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로 이 소식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런 뉴스는 금세 리원량이 아직 살아 있으며 긴급 소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으로 대체됐다. 결국, 그가 근무했던 우한중심병원이 7일 오전 3시 리원량이 사망했다고 확인하면서 소동이 끝났다.

블룸버그통신은 리원량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 수 시간은 중국 관리들이 신종 코로나 전개 사항에 대해 투명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보다는 오직 국가적으로 뉴스를 검열하고 관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리원량은 생전 중국과 세계에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의 존재를 경고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대처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린 셈이다.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 정부도 전염병 예방과 대처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상기하고 신종 코로나 퇴치를 위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baejh94@

건강 100세

고령화로 흔해진 '과민성 방광'

최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운동 등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근육이 저절로 수축하여 급하게 소변이 마렵고 또 자주 보는 과민성 방광이 흔하다.

복압성 요실금은 증상이 경미하면 골반저근운동, 전기자극치료, 바이오피드백, 체외자기장치료 등 물리치료로 치료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문제는 과민성 방광이다. 왜냐하면 과민성 방광은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마렵기 때문에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도 지장을 주며 불쾌한 냄새, 수치심, 우울증 등 사회생활에 엄청난 불편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질환 없이 하루 8번 이상 자주 소변이 마렵고,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이 있으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야 한다.

의료진은 요역동학 검사로써 요실금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고 방광근육의 기능을 평가해 더욱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과민성 방광은 요역동학 검사상 방광근육의 불수의적 수축을 보일 수 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에는 물리치료도 도움이 되나 우선적으로 행동치료요법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배뇨는 3~4시간마다 300 ~ 500 cc 정도의 소변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 심한 경우 방광훈련을 통해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물론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훨씬 수월하게 방광훈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약물치료도 구강건조, 변비, 시력 감퇴, 기억력 감퇴 등 부작용이 많은 약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료를 끝내야 한다.

또한 과민성 방광의 치료에는 식생활 등도 중요하다. 특히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경우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오랜 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기간 중에는 우선적으로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식은 끊어야 한다. 귤, 오렌지 등 신맛이 강한 과일과 조미료가 첨가된 음식, 맵고 짠 음식, 탄산음료 등도 삼가는 것이 좋다.

이교원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교수



SAMSUNG



- “미세먼지 99.999% 제거”는 하이브리드 집진필터의 0.3㎛ 사이즈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의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 (시험 입자: 0.3㎛ KCl 입자, 풍속: 0.1m/s). 국제인증기관 intertek의 검증을 받은 자사 실험 결과이며,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미국냉공조학회(ASHRAE) 정의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함. * 해당 이미지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미세먼지 시대의 청정한 해답

삼성 미세먼지 해결 가전



무풍에어컨 그랑데 무풍큐브 제트 에어드레서